



"모든 끝은 새로운 시작으로 이어진다"
2018 무술년(戊戌年)에 졌던 해가
2019 기해년(己亥年)에 다시 뜬다.
황금돼지띠의 기운으로 시민 모두 살맛나는 세상을!

03

생생도시 안산, 생활 속 변화들②

"겨울철 추위에 잠시라도 온기를 느껴보세요" 지역 내 60개 버스정류장에 발열의자 설치, 어르신 임신부 등 교통 약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

11

우리산업을 이끄는 안산스마트허브④

자동차용 윈도우 와이퍼 분야를 대표하는 기업 한국와이퍼(주) 이경국 대표이사 "미래의 꿈을 가지고 전 세계로, 글로벌 브랜드를 만든다"

08

인터뷰 >> 강성금 안산시행복예절관장

"저는 차와 예절로써 격조 있는 전통문화를 잇고 72만 안산시민의 건강한 삶을 뒷받침하겠습니다"

17-19

동네소식

반월동, 고운빛하모니여성합창단 정기연주회
시동, 복지센터 개관...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고잔동, 소생길에 피어난 일족달록 월동 준비
초지동, 초지고 효사랑 체험으로 경로당 위문 행사

2019년 안산

천년의 종 타종

2018.12.31.(월) 21:00 ~ 2019.1.1(화) 01:00

장소: 화랑유원지 단원각

식전공연, 타종행사, 달집태우기(소원꽃이), 불꽃놀이
(식전공연: 버스킹, 와리풍물놀이, 안산시립합창단, 안산경기민요단)

안산시 '풍도 보건진료소' 문열다

의료인 상주하여 주민 건강관리 및 응급상황 대비



대부도로부터 24km 떨어진 섬마을 안산시 풍도에 풍도 및 육도 주민들을 위한 보건진료소가 문을 열었다.

안산시는 12월 11일 풍도·육도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풍도 보건진료소를 개소하고 안산시 관계자, 도·시의원들, 지

역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소식을 열었다.

풍도 보건진료소는 총사업비 11억7천9백만 원을 투입해 지상2층 규모로 지어졌으며 진료실 및 주사실, 운동기구를 갖춘 건강증진실 등으로 이뤄졌다.

앞으로 보건소에는 보건의료인 1명이 상주하여 풍도 주민들의 부상 및 질병상태를 진찰·치료하고 의약을 투여하며, 만성질환자 관리 및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등 주민들의 건강관리에 힘쓰고 있다. 대부도에서 남서쪽으로 24km 떨어진 섬인 풍도와 육도는 육로로는 접근할 수 없으며 현재 152명의 주민들이 살고 있다. 주민의 70%가 고령인구로 의료수요는 매우 높지만 그동안 섬에 의료시설이 없어

기본적인 진료를 제때 받지 못하고, 특히 응급환자 발생 시 기상상황 등으로 육지로의 후송이 어렵거나 시간이 지체되어 큰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주민들은 기본 진료와 응급처방을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의 설치를 염원해왔다. 이번 보건진료소 개소로 풍도 내 주민들의 체계적인 건강관리가 가능해졌으며, 응급환자 발생 시 즉각 처치가 가능해져 주민과 관광객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풍도 주민 이 모 씨는 "감기를 한번 걸려도 병원에 가려면 배를 타고 멀리 나가야 했는데 보건소에서 바로 진료를 받고 약을 받을 수 있어서 매우 편리하다"고 말했다.

◇ 문의 : 풍도보건진료소(032-858-9290)

반월도서관 개관... 지상 2층, 총 276석 규모

주민들의 숙원사업 해결, 문화 및 복지 공간 역할 '기대'

12월 17일 상록구 반월동에 공공도서관이 개관했다. 기존 반월햇빛작은도서관은 신규 도서관에 통합돼 운영될 예정이다.

상록구 건전동 산56-9에 위치한 반월도서관은 연면적 956.06㎡, 부지면적 2천446.5㎡에 지상 2층, 총 276석 규모로 지난 11월 준공됐고, 개관을 준비해왔다. 1층은 어린이자료실, 문화교실, 안내실, 사무실 등으로 이뤄져 있고, 2층은 일반자료실, 열람실, 휴게실로 이뤄져 있다.

도서대출과 반납, 희망도서 신청, 독서교실이나 문화행사 운영 등의 역할을 하며 감골도서관의 분관으로 운영된다. 반월도서관 자료실은 평일과 주말 모두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며, 열람실은 하절기(3~10월)엔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동절기(11~2월)엔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다. 매주 월요일과 법정공휴일은 휴관한다.

반월동 주민 A 씨는 "중앙도서관이나 그나마 가까운 감골도서관을 이용하기에도 거리가 멀어 불편했는데, 그 정도 규모는 아니지만 동네 안에 공공도서관이 생기니 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뭔가 든든한 기분이 든다"며 반겼다.

평소 반월햇빛작은도서관을 자주 이용했다는 주민 B 씨는 "작은도서관을 잘 활용하던 시민들도 있어서 그렇게 큰 변화인지는 모르겠지만 공공도서관이 생기는 만큼 다양한 문화행사, 교육프로그램이 늘어나서 반월동에도 문화 인프라



가 많아지면 좋겠다"고 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 8월부터 도서 구입 입찰을 진행 중이며, 도서관에서 근무할 자원봉사자 모집도 마감했다"며 "반월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던 공공도서관이 주변 학교 학생과 지역주민의 문화 및 복지 공간으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 문의 : 반월도서관(031-481-2663)
황정욱 명예기자_loose_dom@hanmail.net

안산시 25개 동(洞)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강화 워크숍... 사이동, 이동, 신길동 등 우수사례 발표



안산시는 12월 13일 한양대학교 게스트하우스 컨퍼런스를에서 25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및 위원 5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은 안산시립합창단의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한 해 동안 헌신적으로 참여한 위원 표창장 수여, 우수사례 발표와 역량강화 교육으로 진행됐다.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2015년 4개 동에서 시범사업 후 2016년부터 중점적으로 실행된 것으로, 통마다 민·관 공동위원장을 포함하여 상록구 282명 단원구 228명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자발적으로 동의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

고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며, 향후 계획을 함께 논의·발굴해 간다. 우수사례로는 전수조사를 통해 발굴된 위기 가구에게 지원한 상록구 사이동의 '함께하는 우리사이 더 좋은 사이'라는 사업이 소개됐다.

상록구 이동의 지역주민들의 소통창구로서 '행복한 동아리'를 구성한 후 적극적인 사회복지체계 구축을 위해 마을전문 협동조합 설립까지 이어진 성과가 많은 호응을 얻었다.

상록구 사동의 '복지사각지대 제로' 사업도 눈길을 끌었는데 사동 행정복지센터와 상록장애인복지관에 희망우체통을 설치한 후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지원한 사례였다. 단원구 선부2동의 '이웃사촌 관계 맺기'와 신길동의 '행복지킴이' 사례도 높이 평가됐다. 2019년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으로 활동하길 원하는 주민은 각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 문의 : 안산시 복지정책과(031-481-2876)
노론산 명예기자_nrssun@hanmail.net

안산시 상하수도사업소

수도계량기 동파는 예방이 중요합니다!

"겨울철 수도계량기" 이렇게 관리합니다

- ① 수도계량기 보온상태를 미리 점검하여 동파를 사전에 예방합니다.
- ② 집을 비우거나 휴한시에는 수도꼭지를 조금 열어 물을 흐르게 합니다.

안산시 상하수도사업소



생활속 변화들 ②



생활속 변화들 ②

가는 설렘 가득한 길.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이라면 대부분 거쳐야 하는 곳이 버스정류장이다. 기온이 뚝 떨어지는 겨울이 시작되면 버스를 기다리는 시민들의 표정은 밝지 못하다. 도로변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추위를 피할 방법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안산은 좀 다르다. 잠시나마 몸을 녹일 수 있도록 시가 나서 버스정류장에 '발열의자'를 설치했기 때문이다.

안산시는 올 겨울 한파를 대비해 지역 내 버스정류장 60개소에 '발열의자'를 설치하기로 했다. 겨울 한파에 대비

새벽공기 맞으며 학교 가는 길, 고된 하루를 정리하는 퇴근길, 누군가를 만나러

하여 어르신, 임산부 등 교통약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이다.

안산시는 재난관리기금 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상록구와 단원구 내 버스정류장 중 각 30개씩 총 60개소에 발열의자를 설치하기로 했다. 전철역 인근이나 관공서·학교·주요 상가 지역 등 이용자가 많은 곳이나 각 동에서 요청한 장소를 우선 선정·설치하고 있다.

안산시청 앞 버스정류장에서 만난 한 시민은 "공기가 차기 때문에 추위는 아쩔 수 없지만 그래도 잠깐이라도 앉아 온기를 느낄 수 있으니 시에서 잘한 것 같다"라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시 관계자는 "당장은 선택적으로 60개 버스정류장에만

설치하지만 이후 시민들의 추가 설치 요청이 있을 경우, 예산을 확보해 더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문의 : 안산시 안전사회지원과(031-481-2790)
황정옥 명예기자_loosedom@hanmail.net



“소통과 협력으로 성장해간다”

외국인주민·민관협의체 합동워크숍 개최



안산시 다문화지원본부는 지난 12월 12일 다문화지원본부 다목적실에서 안산시 외국인주민협의회·민관협의체 위원 대상으로 다문화교육 및 워크숍을 진행했다.

안산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인구가 많은 국가를 대상으로 대표 위원을 선정하여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에 앞장서고 있는 외국인주민협의체와 외국인 및 외국인가정에 대한 교육·문화·체육·고충처리 등 지원에 대한 협의·조정으로 효율적인 외국인 정책 개발에 힘쓰고 있는 민관협의체가 처음으로 함께한 자리였다.

2018년 세계마술올림픽 국가대표인 지혜준 마술사의 화려한 마술쇼를 오프닝 무대로, 지방행정연구원 정부 3.0 추진단장으로 활동 중인 고경훈 박사의 '외국인 단체 간의 협업 활성화', 최영일 김포시외국인주민지원센터장의 '외국인단체의 지역사회 커뮤니티 발전방안' 등의 강연이 이어졌다.

이 날 워크숍에 참석한 나이지리아 대표 그레이스 위원은 "정기적인 회의의 틀을 벗어나 좋은 공연을 보니 마음이 편안하고, 특히 현장의 얘기를 생생하게 전달해준 강의에서 관계기관의 입장을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다.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임홍선 안산시 다문화지원본부장은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많은 위원들이 참석하여 감사하게 생각하며 향후 다문화정책 전반의 해결방안 공동 모색과 정책협의 등을 통해 급격한 환경변화 속에서 내·외국인이 더불어 상생할 수 있도록 외국인주민·민관협의체가 앞장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고 했다.

◇ 문의 : 안산시 다문화정책과(031-481-3745)

협치시대 개막, 안산시 협치 조례 제정

12월 27일 공포 예정... 시민사회 협력과 참여 지원

안산시가 '시민들의 협치'를 조례로 명문화하여 본격 '협치시대'를 연다.

안산시는 '안산시 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이하 '안산시 협치 조례')를 오는 27일 공포할 예정이다. '안산시 협치 조례'는 시민사회 협력과 참여 지원을 골자로 총 3장 22개의 조문으로 구성돼 있다. 협치의 정의와 기본원칙을 비롯해 협치 시정에 관한 사항에 심의·조정하는 협치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등 협치 활성화를 위한 사업과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이 같은 조례는 그동안 행정에 집중됐던 시정의 권한을 시민과 공유한다는 목표로 추진돼 왔다. 안산시는 조례 제정 과정에서부터 협치의 정신을 심본 발휘했다. 공무원이 조례안 작성을 전담하던 관례를 버리고 시민사회 전문가, 시의원이 공무원과 함께하는 '협치활성화TF'를 구성해 조례안을 공동 작성하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협치는 선택이 아니라 시대적 필수 가치"라며 "협치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튼튼한 협치 체계를 세워 시민의 목소리가 시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문의 : 안산시 미래전략관(031-481-3402)

“시민이 구상하는 20년후 안산의 모습은?”

2040년 안산도시기본계획 시민참여단 모집

안산시는 20년 후 안산시의 모습을 만들어 가기 위한 '2040년 안산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참여할 시민참여단 100명을 모집한다.

시민참여단은 2040 안산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각종 보고회에 참석해 진행사항 등을 모니터링하고, 향후에도 도시기본계획 재수립 등에도 지속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시민참여단은 ▲도시/주택 ▲경제/산업 ▲문화/복지 ▲안전/교통 ▲환경/공원 등 총 5개 분과로 운영되며, 회의는 내년 1월부터 4월까지 토요일에 총 8회 진행된다. 또한 분과별 핵심과제 및 세부전략을 수립하여 2040년 안산도시기본계획 보고서에 운영결과를 반영할 예정이다.

안산 시민(안산시 관내 기업체 종사자 포함)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신청서 접수는 12월 12일부터 31일까지이다. 안산시 홈페이지(www.ansan.net)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해 안산시청 도시계획과에 방문, 우편, 팩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산시 도시계획과(☎031-481-2373)로 문의하면 된다.

“터치’ 한번으로 지하철역에서 책 빌리세요”

안산시, 무인 ‘스마트도서관’ 서비스 개시... 상록수역 · 중앙역에서 이용 가능



도서관에 가지 않고도 지하철역에서 책을 빌릴 수 있는 서비스가 시행된다.

안산시는 12월 11일부터 지하철 4호선 상록수역과 중앙역

에 ‘스마트도서관’의 문을 열었다.

스마트도서관은 자판기 형태 RFID(무선 주파수 인식시스템) 기반의 무인 도서대출·반납기로 도서관에 가지 않고도 책을 빌릴 수 있는 자동화기이다. 안산시 도서관 회원증과 모바일 회원증이 있으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고, 한번에 두 권씩 10일간 책을 빌려볼 수 있다. 또한 스마트도서관은 휴일 없이 24시간 365일 운영되며 대출한 도서는 스마트도서관 동일한 기기에서만 반납이 가능하다.

스마트도서관은 상록수역 4번 출구 방향과 중앙역 2번 출구 방향에 설치됐으며, 신간과 베스트셀러 위주의 도서 600여 권이 비치됐다.

시 관계자는 “책 읽는 도시, 안산” 정착을 위한 생활 밀착형 스마트도서관 운영으로 도서관 방문이 어려운 직장인과 학생들이 지하철에서나마 스마트폰에서 벗어나 책 읽는 즐거움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도서관 서비스 소외 지역 시민들이 독서문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회원증 발급이 필요한 시민은 안산시 도서관 홈페이지(<http://lib.ansango.kr>) 가입 후, 안산시 지역 도서관에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여 직접 방문하면 회원증을 받을 수 있다.

◇ 문의 : 안산시 중앙도서관(031-481-3347)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

15만5천 건 221억 원 부과...
12월 31일까지 납부

안산시는 2018년 제2기분 자동차세로 약 15만5천 건 221억 원을 부과한다. 이번 자동차세는 12월 1일 현재 안산시에 사용본거지를 둔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며, 자동차(승용, 승합, 화물, 특수), 125cc 이상 이륜차, 건설기계가 과세대상이다.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등록일 기준 3년차부터 매년 5%씩 최고 50%까지 자동차세를 감감하며, 올해 자동차세를 선납(일시납)한 차량 및 지난 6월 1일 이전에 등록하여 6월에 자동차세를 납부한 경차, 승합차(11인승이상), 화물차량 등 연세액 10만원 이하 차량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우체국에 방문해 납부하면 된다. 이 외에도 ▲농협·우리·기업·국민·신한은행 가상계좌 납부 ▲ARS 전화(상록구 1588-5128, 단원구 1588-6128)를 이용한 신용카드 납부 ▲인터넷 지로(www.giro.or.kr) 납부 ▲위택스(www.wetax.go.kr)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스마트폰 앱 ‘경기도 스마트 고지서’를 신청한 납세자는 스마트폰으로 지방세고지서 확인에서 납부까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상록구청 세무1과(☎031-481-5195), 단원구청 세무1과(☎031-481-6190), 안산시 민원콜센터(☎1666-1234)로 문의하면 된다.

안산문화재단, 단원 김홍도 콘텐츠로 국제문화교류 펼쳐

해외전시 ‘단원 김홍도, 길을 떠나다’ 중국 연태시 화원에서 개막



안산문화재단은 지난 11월 16일부터 21일까지 안산시 해외자매·우호 도시인 중국 연태시 연태화원에서 단원 김홍도 콘텐츠 해외전시 ‘단원 김홍도, 길을 떠나다’를 진행했다. 이번 해외전시는 안산의 중요 문화자산인 ‘단원 김홍도’의 작품세계를 재해석한 문화예술 콘텐츠를 모아 전시와 공연으로 구성된 융·복합 프로젝트로, 안산문화재단과 중국 연태시가 함께 준비했다.

이번 전시에는 ‘행려풍속도병’, ‘평안감사행연도’ 등 조선 후기 생활상을 살펴볼 수 있는 단원 김홍도의 영인본과 그의 작품을 모티브로 새롭게 재탄생시킨 이이남, 차동훈, 조환 등의 미디어 설치 작품이 선보였다.

또한, 안산문화재단의 상주단체인 엠비규어스댄스컴퍼니와 극단 결판의 협업으로 탄생한 융·복합극 ‘단원화무도’ 중 ‘서당’도 소개됐다. ‘서당’은 김홍도의 그림과 국악을 배경으로 선보이는 현대무용 작품이다.

개막식에는 백정희 대표를 포함하여 리링 중국 연태시 문화방송신문출판국 부국장, 왕홍생 연태시 외사교무사무실

부주임, 허종이 연태시 문련 부주석, 손성하 연태화원 원장이 참석했다.

안산문화재단 관계자는 “안산과 닮은 항구도시 연태에서 단원 김홍도 콘텐츠로 한국 미술의 전통과 현대를 모두 보여드릴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리링 부국장은 “질은 지역적 특색과 높은 문화적 수준을 자랑하는 단원 김홍도 전시로 두 도시의 문화교류와 협력이 깊어지는 데에 의의가 있다.”며 “전통적 예술 자원을 현대적으로 계승하면서도 시대정신과 혁신을 담아낸 풍성하고 입체적인 전시”라고 환영했다.

이번 전시는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2018년 지역 우수 문화교류 콘텐츠 발굴·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고유의 우수한 문화자원 발굴과 국제교류 활동 지원, 지역 문화 콘텐츠 가치 확산을 위해 진행됐다.

◇ 문의 : 안산문화재단 단원미술관(031-481-0537)
이선희 명예기자_jamyou70@hanmail.net

안산시 지정소식지 '브라보안산'에서는 시민여러분의 사연을 모집합니다.

생활수기

주제 : 안산시민 생활담(자유주제)
분량 : A4용지 2/3 이상, 작성자 사진

내가 안산을 사랑하는 이유

주제 : 안산을 사랑하는 이유 또는 안산 자랑
분량 : A4용지 절반, 좋아하는 장소 사진

나비잠

주제 : 생후~24개월 전후 아이를 둔 가정의출산·육아이야기
분량 : A4용지 절반, 아기 사진 1장

※ 글자 크기는 10p(포인트) 기준이며 보내주신 사연이 채택된 경우 소정의 원고료(5~7만원)가 지급됩니다.



안산시 선부3동 '달미작은도서관' 개관

지상 1층, 좌석 80석 규모... 종합자료실, 문화교실, 심터 등 구성



여행분야 특화 도서관인 '달미작은도서관'이 12월 12일 단원구 선부3동에 문을 열었다.

달미작은도서관은 ㈜이레일로부터 기부 채납돼 지상 1층(499.64㎡) 좌석 80석 규모로 건립되며, 종합자료실과 문화교실, 심터, 사무실 등으로 구성돼 있다.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매주 금요일과 법정공휴일은 휴관한다.

또한, 여행도서를 비롯해 일반도서, 아동도서 등 총 1만3천여 권의 도서를 소장하고 있고, 특화 주제에 걸맞게 전국 여행 관련 안내책자와 세계 지도, 여행 사진 등을 비치하고 있다.

안산시민이면 누구든지 열람이 가능하다. 아울러 여행인문학강좌, 체험행사 등의 양질의 독서문화프로그램 등도 제공될 예정이다.

최근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는 워라벨(워크 앤드 라이프 밸런스) 문화가 확산되고, 여행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달미작은도서관의 개관은 여행 및 관광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 제공과 전문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건전한 여가 생활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병호 관산도서관장은 "여행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여행의 기쁨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힐링이 필요한 시민들에게 달미작은도서관이 일상의 휴식처로 자리매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가타 자세한 사항은 안산중앙도서관 홈페이지(<http://lib.ansan.go.kr>) 또는 관산도서관(☎031-481-3854/3750)으로 문의하면 된다.

안산시 정책은 시민이 직접 설계한다

만사소통 시민1번가 '온라인 정책토론포럼' 운영 개시

안산시는 시의 주요 정책 및 시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에 대해 시민 아이디어를 시정에 적극 반영키 위해 '온라인 정책토론포럼'을 운영한다.

온라인 정책토론포럼은 시의 주요 정책결정 과정에 시민의 목소리와 아이디어를 반영함으로써 시민 중심의 정책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안이다.

시는 효율적인 운영과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12월 시범 운영을 거친 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시범운영 기간에는 안산시 인구 감소 대응 방안, 도시재생사업의 주민 참여 방안, 생활쓰레기 불법 투기 근절 방안 등 5개 사업에 대한 시민 아이디어를 접수하고 이에 대해서

는 우선적으로 정책에 반영하기로 했다. 또한, 시민이 직접 정책 제안을 할 수 있는 '토론 제안방'도 함께 운영해 시민과의 쌍방향 소통도 이루어지도록 했다.

시 홈페이지-시민참여-정책토론포럼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 가능하며, 우수 아이디어 제안자나 토론자에 대해서는 심사를 통해 소정의 온누리 상품권도 지급한다.

시 관계자는 "지역 주요 정책과 현안에 대한 시민들의 정책 참여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며 "시민 여러분의 참신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는 민선 7기 시정을 이끌어 가는 핵심 동력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 문의 : 안산시 정책기획과(031-481-2801)

극단 '가우자리' 2018년 정기공연 '지구평화일기'

일자리 지원정책으로 청년 예술인 도약의 기회 제공



월파동에 살고 있는 청년 예술인들이 '가우자리(대표 김종숙)'라는 극단을 운영하고 있다. 가우자리의 2018년 정기

공연 '지구평화일기'가 11월 21일부터 24일까지 극장 '메아리'에서 열렸다. '지구평화일기'는 월파동 행정복지센터가 주최하고 안산시 일자리정책과가 지원하는 2018년 안산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프로젝트다.

서울의 한 달동네를 배경으로 5년째 백수로 지내는 아버지 훈호가 고등학생인 딸 지구와 함께 상금 3억이 걸린 추석집 퀴즈쇼에 참가한다는 내용이다. 소시민이지만 따뜻한 한 가족의 이야기를 그렸다. 청년 연극인 김규남 씨가 각색과 연출을 맡았으며, 김종숙 대표를 비롯해 가우자리 소속 배우들이 출연했다.

연출을 맡은 김규남 씨는 "연극 '지구평화일기'는 바쁘고 고된 생활 속에서 잊게 되는 가족의 소중함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연극"이라고 소개했다.

김종숙 대표는 "시가 추진하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청년 예술인들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 2016년부터 시작돼 1년에 두 번씩 단원을 모집해 활동하고 있다"며 "청년 예술인들이 경제적인 불안으로 더 적극적인 예술 활동을 펼치는데 제약이 따르는 현실이지만,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청년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안산 지역에 젊은 예술인들이 자리 잡을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극단 가우자리는 이후 청소년 대상 연극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며, 경로당이나 복지관을 찾아가 어르신 대상 펼쳐는 보이스 피싱 예방 교육극도 계획하고 있다.

◇ 문의 : 월파동행정복지센터(031-481-5089)
황정욱 명예기자_loose dom@hanmail.net

소식通

고시원 안전점검 전수조사

최근 고시원에 대한 화재 등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안산시는 지난 17일부터 고시원 281곳을 대상으로 일제 안전점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조사는 건축법상 고시원 제도 도입(2009.7.16.) 이전부터 고시원으로 사용하고 있어 강제규제가 불가한 고시원부터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2015.12.4.) 등에 위반된 고시원 건물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점검한다. 점검결과에 따라 위반사항은 시정토록 하고, 나아가 취약계층의 주거생활 안전을 위한 계도로 진행된다.

◇ 문의 : 안산시 건축과(031-481-2301)

천년도시 안산 복원 시작

안산시는 12월 19일(수) 16시 안산객사(수암동 산 26-4 일원)에서 「안산읍성 및 관아지」 성곽복원 공사 기공식을 개최한다. 「안산읍성 및 관아지」는 왜구 침입을 대비해 고려후기부터 조선시대까지 수암봉을 능선을 이용해 쌓은 평산성으로 사흥시 관할시기인 1991년 10월 19일 경기도 기념물 제127호로 지정되고, 역사적 뿌리를 찾아 1995년 4월 20일 안산시로 편입되었다. 그동안 안산시는 7차례의 발굴조사, 복원사업을 위한 토지매입, 객사복원 등을 추진하였으며, 성곽복원을 위한 사업비 55억(특별교부세 6억원, 도비 24.5억원, 시비 24.5억원) 확보하여 2020년까지 안산읍성 400m 및 집수지 복원, 산책로 정비 사업이 진행되고, 2021년부터는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여 관아지(동헌, 아사, 옥사 등 조선시대 건물)를 복원할 예정이다.

◇ 문의 : 안산시 문화예술과(031-481-3438)

안산단원국제문화예술영상제

545편 출품... 대상에 '텔미비전', '원곡동 사람들' 선정



안산영화인협회가 주최하고 안산시가 후원한 제2회 안산 단원국제문화예술영상제(집행위원장 차성민 이하 단원영상제)가 지난 12월 1일 안산문화예술의전당 국제회의장에서 막을 올렸다.

545편 출품작 중 임종민(28)씨의 '텔미비전'을 극영화 부문 대상으로, 최환이(24) 씨 외 2인의 '원곡동 사람들'을 다큐멘터리 부문 대상으로 선정하고 시상했다.

'텔미비전'은 27분짜리 단편영화로 꿈을 향해 나아가는 젊은이의 이야기다. 개그맨이 되고 싶은 주인공이 여자 친구 부모님 앞에서 개그를 하며 자신의 비전을 펼친다는 내용이다.

작품에 대해 임종민 씨는 "이루고 싶은 꿈의 근거를 찾아 영화를 만드는 나 자신에게 처음 마음가짐을 잃지 말 것을 주문하는 다짐 같은 작품"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꿈을 이루거나 목표하는 과정이 지난하더라도 순수했던 초심을 잃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면 좋겠다"고 조언했다.

다큐멘터리 '원곡동 이야기'는 전국 최대 다문화도시 안산의 모습을 담았다. 최환이 씨 등 원곡고 출신 고교통창 3인이 고교 재학시절 보고 느꼈던 원곡동 다문화특구 모습을

공무원, 다문화지원본부 내 일본어 강사, 베트남 쌀국수 식당 주인, 외국인 노동자 등의 입을 통해 보여준다.

최환이 씨는 "원곡동 외국인 노동자뿐 아니라 고려인, 새터민 등 많은 이들이 터전으로 삼은 원곡동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싶었다"고 했다.

차성민 위원장은 "자금은 누구나 자신의 이야기를 스마트폰으로 담아낼 수 있는 1인 미디어 시대"라며 "해마다 4천 명 가까이 배출되는 전국의 영상학도들이 안산으로 집결하기를 바라면서 단원영상제가 젊은 친구들의 디딤돌이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제2회 단원영상제는 대상 2명에게 상금 1백만 원과 상장, 협찬사 제품을 상품으로 각각 수여했으며, 최우수상 2명과 우수상 2명, 장려상 3명에게도 각각 상금과 상장, 상품 등이 전달됐다. 시상은 원로가수 박재란 씨가 도왔다.

이날 영상제에는 김준오, 오영택, 이미래, 석기완, 송정석, 김영근, 이상우, 김정식 등 원로감독들이 대거 참석해 후배들의 수상을 축하했다.

◇ 문의 : 안산단원국제문화예술영상제(031-485-3844)
백미란 명예기자 whity0218@naver.com

“일하는 여성들에게 디딤돌이 되어준 20년을 돌아보다”

안산여성근로자복지센터 개관 20주년 기념식 진행



안산 지역에서 여성 노동자들의 고통을 상담해주고 고용유지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쳐온 안산여성근로자복지센터(센터장 김두리)가 1998년 개관 이후 20주년을 맞이했다. 12월 7일 오후 7시 안산근로자종합복지관 4층 대강당에서 안산여성근로자복지센터 20주년 기념식 '있다'가 진행됐다. 센터를 이용하는 여성 노동자와 관계자 150여 명이 참가했다.

김두리 센터장은 "20주년을 맞아 그 동안 센터가 사람과 사람을 잇고, 개인의 삶과 정책을 잇고, 현재와 과거를 이어온 이야기를 살펴보고자 한다"고 했다.

기념식은 이어 '안산심포니오케스트라'의 클래식 공연, 20주년 기념영상 상영, 축사로 진행됐다. 다음 무대는 사례 발표 순서로 안산여성근로자복지센터의 프로그램을 직접 참여하고 이용해 온 당사자들이 무대에 올라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안산여성근로자복지센터 회원 박 모 씨는 "올해 아기를 낳고 육아휴직 기간 동안 센터와 함께 했다"며 "지난 20년 동안 많은 일하는 여성들과 호흡하며 서로 고통을 들어주고 도와 온 센터의 경험들이 지금 함께 하고 있는 여성 노동자들에게 함께 살아갈 기운을 주는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일동 주민 하 모 씨는 "마을에서 여성들의 책모임을 하고

있는데 안산여성근로자복지센터의 '직장부모커뮤니티 지원사업'을 통해 책도 사서 읽고, 글쓰기 워크숍도 할 수 있었다. 회원들 한 명 한 명 모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사례를 공유했다.

이어 조여옥 수원여성근로자복지센터장, 임남희 선부종합사회복지관장 등 안산여성근로자복지센터에서 일했거나 특별한 관계를 맺었던 사람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었다. 기념식에 참가한 한 여성 노동자는 "일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일을 겪었지만 안산여성근로자복지센터의 도움으로 극복하고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고 있다"며 "디딤돌이 되어준 센터에 감사드리고 내가 도움을 받았듯이 나 또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자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의 : 안산여성근로자복지센터(031-495-5844)
황정옥 명예기자 jooosedom@hanmail.net



위기 아동 지원에 앞장선 동산선교의료지원센터

라오스 댐 붕괴 지역에 7억 원 의료물품 지원... 세계로 뻗어가는 '사랑나눔'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동산선교의료지원센터(센터장 김정남)에서 지역 내 취약아동 외에도 다문화 아동과 낙도 및 산간지역 등 마을을 비롯해 의료 인프라가 취약한 나라에도 지원을 하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동산선교의료지원센터(센터장 김정남)는 2006년부터 노인종합복지를 위한 '늘푸른교실' 개설, 2009년부터 무료진료를 펼치고 있는 '동산복지지원센터' 설립과 '차 해외선교기초 의학과정' 개설, 2012년 '굿파트너즈' 설립, 2018년 '의료지원센터 특별팀(T/F)' 발족, '해 외선교기초의학과정' 개설 등의 사업을 추진하며 취약계층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

특히 지난 5월부터는 드림스타트 아동에게 어린이 감기약 등 비상약품과 어묵, 맛살 등 식품 등을 지원했고, 드림스타트 아동 가정을 대상으로 생필품, 영양제 등 '사랑나눔' 세트

를 구성해 지원하고 있다.

올해 추석에는 강원도 양구군에서 지원한 햅쌀 200포, 어묵, 스낵칩 등을 120가정에 지원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지원 대상을 안산글로벌청년센터의 다문화 아동 및 학교의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 아동들까지 범위를 확대했다. 이는 경제불황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후원이 줄고 있는 상황에서 큰 희망이 되고 있다는 평가다.

지난 11월에는 라오스의 남부 댐 붕괴 수해지역에 7억 원 상당의 의료물품을 지원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의료 인프라가 취약한 30여 나라에 의료물품을 지원하고 있다. 올 한해 지원 금액만 총 30여억 원에 달한다.

후원에 참가하고 있는 업체는 사랑나눔공동체, 삼성제약, CMG제약, 고려제약, 신신제약, 한림제약, 태진제약, 서충합셀, 한국술가, 대화제약, 한미약품, CJ 제이씨헬스케어 등이다.

김정남 센터장은 "자기 뜻과 상관없이 어렵게 사는 아동들에게 애듯한 마음이 생겨 어떻게 하면 위로가 될까 고민하던 중 의료봉사를 시작했다"며 "아동들이 용기를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싶다. 누군가 자기들을 도와주는 손길이 있다는 것을 알고, 아이들이 상처를 덜 받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도 즐거운 마음으로 봉사 한다"고 말했다.

◇ 문의 : 동산선교의료지원센터(031-400-6600)
김효경 명예기자_post-hk@hanmail.net

안산착한가게 시리즈-②

시장가마솥통닭

“취향에 맞게, 3분 이내로 튀겨 드립니다”



그리운 사람도 많고 그리운 것들도 많아지는 연말이다. 일찍 해가 지고 딱히 할 일도 없던 출근 길 겨울저녁, 퇴근 길 아버지가 사들고 오시던 고소한 통닭 한 마리가 유난히 그리워지는 계절. 12월에 찾아온 안산시 착한가게 시장가마솥통닭(부곡동 소재)은 바로 이런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곳이다. 넓지 않은 가게 안에는 이제 막 튀겨질 치킨을 기다리는 손님들이 차례를 기다리며 앉아있었다. 한 손님은 "서울에서 손자들이 내려 올 때면 항상 여기서 치킨을 포장해가요, 손자 녀석들이 집에 오자마자 항상 아집 치킨을 시켜달라고 하니까요"라며 미소를 지었다.

옆에서 이 말을 들던 다른 손님도 "우리도 매주 한번씩은 이집 닭을 주문해요, 느끼하지 않고 질리지도 않고 한결같은 맛이 있어요"라고 말했다.

같은 자리에서 2년째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시장가마솥통닭 안태형 대표 부부는 "요리에 뜻이 있어 중식, 한식, 양식을 공부하다가 치킨으로 방향을 정하고 수원 동탄거리, 아산의 파닭맛집 등 안 다닌 곳이 없을 정도로 전국의 치킨 맛집을 찾아다니며 연구했어요. 보다시피 가게 위치가 시내 중심가도 아니고 한적한 곳에 있어서 매출은 한계가 있지만,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고 연구할 시간이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고 했다.

이어 "닭을 튀길 때 사용하는 파우더를 직접 개발했고 튀김 시간, 기계식 방식이 아닌 가마솥방식의 조리법까지 우리 가게만의 차별화된 방법으로 조리하고 있어요. 퇴근길 테이크아웃을 해가는 손님들을 위해 주문하면 3분 이내에 튀겨낼 수 있도록 조리시간을 단축했고, 바삭하게 해달라거나 육즙이 부드럽게 해달라는 등 단골손님들의 취향에 따라 조리해드리는 것이 손님들을 위한 우리집만의 노하우입니다"라고 말했다.

시장가마솥통닭의 또 다른 자부심은 국내산 생닭만을 사용하고 매일 튀김기름을 교체하여 신선하게 맛을 유지한다는 것. 이것이 가게를 찾는 모든 손님들에 대한 최소한의 신뢰를 지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장가마솥통닭의 착한메뉴는 시장통닭으로 가격은 5천 900원이며 현금결제 포장을 해갈 경우 5천원으로 할인이 된다. 후달, 파닭, 반달, 양달 등 다른 메뉴도 1만4천 원~1만 5천 원으로 다른 프랜차이즈 매장보다 가격이 저렴하다. 명절연휴 하루를 제외하고 연중무휴로, 오후 3시부터 저녁 11시까지 운영한다. 주차는 상가 앞 도로변에 가능하다.

◇ 문의 : 안산시 지역경제과(031-481-2842)
송민아 명예기자_junseo1000@hanmail.net

시장가마솥통닭

주소 : 안산시 상록구 정재로 124
운영시간 : 오후 3시 ~ 저녁 11시
휴무일 : 연중무휴
전화 : 031) 507-0240



INTERVIEW

66

격조 있는 전통문화로 시민의 건강한 삶 뒷받침할 것

99

· 강성금 안산시행복예절관장



"안산은 학문과 예술의 향연으로 가득 찬 고장입니다. 다산 정약용의 스승이신 성호 이익선생, 시·서·화 3절로 추앙받은 표암 강세황, 그리고 단원 김홍도가 계십니다. 전국의 어느 시군구와 비교해도 빠지지 않는 전통 정신문화 유산을 갖고 있는 곳이지요. 저는 차(茶)와 예절로써 격조 있는 전통문화를 잇고 72만 안산 시민의 건강한 삶을 뒷받침하겠습니다."

민선7기 들어와 4대 안산시행복예절관장으로 취임한 강성금(68) 관장의 일성이다. 지난 12월

12일 강 관장을 만나 임기 3년 동안 안산시행복예절관을 이끌어갈 포부와 계획을 들었다. 다음은 일문일답이다.

Q 정조대왕 탄신다례, 수원화성문화제 고유별다례 진행 등 다례에 조예가 깊은데 언제 차(茶) 문화에 입문했나?

1990년에 입문해 올해로 29년이 되었습니다. 성균관대학교 대학원에서 생활예술과 다도를 전공하고, 맥이 끊긴 조선왕실 다례문화를 연구해 예다학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화령전 정조대왕 탄신다례' '수원화성문화제 화령전 고유별다례' '다산 정약용 헌다의식' 등은 대학원 연구 결과물로 대한민국 최초 재현 의례라 할 수 있습니다.

Q 차는 본인에게 무엇인가?

도(道)를 얻는 방법은 여러 갈래지만 대학 중용에서 이르기를 '마음을 고요히 가지라. 고요하면 맑아지고, 맑아지면 밝아지고 밝아지면 보인다'고 했습니다. 차 자리에 앉으면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차 자리를 통해서 맑아지고 밝아진다면 차는 더불어 사는 세상에서 꼭 필요한 매개체가 됩니다.

Q 예절관에서 운영 중인 프로그램이 여럿 있는데,

기존의 운영되던 틀을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겁니다. 이전 관장들이 여러 과정을 통해 거듭 다듬은 결과물이기도 하니까요. 다만 상황에 따라 첨삭이 있을 텐데요. '찾아가는 예절학교'는 유치원(98개소), 초등학교(55), 중학교(29), 고등학교(24)로 한정짓지 않고, 기업체나 직장을 방문해 글로벌 시대에 꼭 필요한 현대예절과 호감 이미지 만들기 등의 특강을 진행하는 '찾아가는 직장예절학교'로 폭을 넓힐 계획입니다. 표암 강세황, 성호 이익, 단원 김홍도 세 어른의 탄생일에 차를 올리는 의식 '헌다제'와 세월호 참사 단원과 학생들을 위한 추모 헌다례, 고3학생 대상 찾아가는 성년례, 탈북민·다문화가족을 위한 전통혼례, 자매·우호도시와 나누는 차 문화 교류전과 봄·가을 가족다례, 명상다례, 선비다례를 포함한 차 자리 콘서트 등은 차와 예절의 전통문화로써 '문화도시 안산'을 부각시키고, 안산의 3만여 젊은이들이 몸가짐을 바로하고 어른으로서의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갈 것을 공표하는 중요한 의식이 될 것입니다.

◇ 문의 : 안산시 행복예절관(031-475-0323)

백미란 명예기자_whty0218@naver.com



사단법인 '일하는 사람들의 생활공제회 좋은이웃'

선부동 아파트 내 경비·청소노동자 '쉼터' 환경 개선



사단법인 일하는 사람들의 생활공제회 좋은이웃(이하 '좋은이웃')은 지난 11월 25일 단원구 선부동 한 아파트에서 노동자들의 쉼터 개선 사업을 벌였다. 안산·시흥 비정규

노동자지원센터와 봉사동아리 '따스네'가 함께 했다. 그동안 이곳에서 근무하는 여성미화원은 식사나 휴식을 위한 공간이 부족해 맨바닥에 장판을 깔아 임시로 사용하고 있었다. 이에 '좋은이웃'은 노동자들의 보다 편한 휴식을 위해 쉼터의 도배 및 장판 공사를 마쳤으며 냉난방기도 설치했다.

남성경비원들의 휴게실도 수납이 부족해 옷과 짐들로 어수선했던 공간에 수납장을 비치, 한결 쾌적한 공간으로 변화시켰다. '좋은이웃'은 노동자들의 근무환경 개선뿐만 경비·청소 노동자들의 고용안정 및 근로기준법 준수를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쉼터 개선을 마친 아파트와 협약을 맺어 이후에도 쉼터가 잘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해당 아파트의 개선 사업을 홍보하고 협약내용

에 대한 캠페인도 진행함으로써 경비·청소노동자에 대한 입주민들의 인식을 바꾸고자 노력하고 있다.

'좋은이웃' 관계자는 "청소·경비노동자들은 직업 특성상 고령자가 많지만, 그동안 냉난방이 미흡하고 환기조차 잘 되지 않는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개선 사업이 우리 주변에서 힘들게 일하는 노동자들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들과 우리가 '갑'과 '을'이 아닌 이웃으로 만나 함께 나누는 삶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문의 : 좋은이웃(031-411-2323)

박미영 명예기자_woghk@hanmail.net



사회적기업

(주) 안산해피홀스클럽



최영길 대표

반월동 수리산 골짜기에 위치한 '안산해피홀스클럽(대표 최영길)'이 연간 1천여 명이 다녀가는 체험장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최영길 대표는 경희대학교에서 태권도를 전공한 공인 9단의 지도자 출신으로 태권도협회를 비롯해 각

종 체육계에서 활발하게 활동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지난 2011년부터 승마클럽을 운영하고 있다. 일반인 승마 교육, 학생 대상 체험 교육 및 장애인 재활 승마 프로그램 등을 통해 지난 2015년 학생 현장 학습장으로 지정됐다. 이후 예비사회적기업을 거쳐 2017년부터는 사회적기업으로 운영되고 있다.

승마는 평형성과 유연성을 길러주는 전신운동으로 집중력을 길러주고 신체를 바르게 교정해주며 허리 근육을 강화시켜준다. 또한 장 기능과 폐활량 및 신체 리듬감 강화에 좋고 관절염과 다이어트, 변비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

일반인에게 승마는 말을 타고 천천히 걷는 '평보', 반동을 주어 조금 빠르게 걷는 '속보', 달리는 '구보'를 배우는 것을 말하며, 허벅지와 종아리로 말을 감싸듯 타야하기 때문에 하체 근력을 강화하는 데도 효과가 크다. 무엇보다도 동물과 교감하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의 정서와 지체 장애인들의 재활치료에도 좋다.

해피홀스클럽은 1만5천 평의 자연환경 속에 1일 승마 체험, 승마 시뮬레이션, 얼음 썰매장, 동물농장, 도롱뇽 서식 체험장 등을 갖추고 있다. 현재 초등학교, 아동복지센터 등에서 단체

“승마체험 하며 동물과 교감해요”



체험 학습장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으며, 경기도 일대 최고 인기 체험 학습장으로 꼽힌다.

특히, 학생 승마는 농림부와 안산시의 지원을 받아 운영하기 때문에 자부담 9만 원만 내면 10회의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초·중학생을 선발해 유소년 승마단을 창단해 각종 대회에 참가시키며 승마산업의 핵심 인력으로 육성하는 등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최영길 대표는 “승마 투어, 승마를 통한 정서적 치료, 승마 다이어트 등 다양한 승마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해 말 산업과 승마 산업의 인프라를 구축하며 타 지역과의 연계도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 문의 : 안산해피홀스클럽(www.ahhc.co.kr, 031-418-5400)
산선영 명예기자_woghkiah@hanmail.net

청년창업의 꿈

안산시 청년큐브를 가다②

안산시는 경기도의 'NEXT 창조오디션' 공모 선정을 통해 지역 내 비어있는 상가를 활용해 청년 창업공간인 청년큐브를 조성·운영해오고 있다. 청년의 자립과 성장을 지원하는 청년창업 인큐베이션 사업에 선정돼 다양한 융복합 실험을 하고 있는 청년들의 꿈을 향한 여정을 소개한다.

새로운 놀이문화를 만드는 청년들 '더블규'

재미와 교육적 요소를 담은 야외 추리 콘텐츠 개발

'영화, 연극, 뮤지컬 등 할 수 있는 놀거리는 다 해 봤지만 그 이상 여가를 즐길만한 것이 없을까'라는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놀이콘텐츠를 제작하는 청년들을 만났다. 안산에서 나고 자라며 고교시절을 함께 한 한규하, 이규현 씨로, 이들은 공동의 취미를 사업으로 발전시켰다. 각 이름에 들어있는 '규'를 활용 '더블규'라는 팀을 꾸려 청년큐브 초지캠프에 입주했다.

관광경영학을 복수전공한 한규하 대표는 4년여 동안 여행사에서 해외관광 가이드로 활동했다. 그 당시 오랜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골목들을 돌아다닐 수 있었고, 그 경험이 창업 아이템으로 이어졌다. 관광객에게 그 지역의 이야기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서 추리형 미션 게임에 관심을 갖게 된 것.

이후 고교동창이던 이규현 대표와 함께 판교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창업교육을 받았고, 지난 3월 창업에 성공했다.

'더블규'는 런닝맨 등 각종 예능 프로그램의 추리형 미션 게임들을 보면서 일반 대중들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착안, '야외방 탈출', '좀비 런' 같은 오프라인에서 진행되는 야외 액티비티(activity, 레저활동) 추리 콘텐츠를 개발했다.

더블규 콘텐츠는 탐정단이 되어 추리 키트(kit, 세트)를 들고 광화문 역사박물관, 경복

궁, 중앙박물관 등지에서 카카오톡과 챗봇(자동채팅 앱)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식이다. 전체 코스는 약 1~2시간 정도 소요된다.

지난 10월에는 30여 명이 참여한 한 기업체의 워크숍에서 '산업스파이를 잡아라'라는 주제로 용의자 파일을 단서로 제공하며 런닝맨 형식의 프로그램을 진행해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가족 또는 연인과 함께 색다른 체험을 즐기고 싶은 성인들에게는 '어린이 탐정단'을, 교과과정에 맞는 어린이교육 플랫폼으로는 '어린이 탐정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내년 초부터 서울 광화문에서 주말과 연휴에 월 10회 가량 가족 대상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안산국제거리극축제 등 지역의 다양한 행사에 참가해 사람들이 즐기는 일상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콘텐츠를 발전시켜나갈 계획이다.



더블규 (좌)한규하 (우)이규현 대표

◇ 문의 : 더블규 (010-5157-5299)

산선영 명예기자_woghkiah@hanmail.net

안산시 세 번째 청년 창업 인큐베이터, 씨네랩 기존 영화관 리모델링... 시제품 제작실 등 특색 있는 공간 조성



지난 2017년 12월 28일 단원구 초지동에 개소한 씨네랩(CineLab)은 안산시 청년 창업 인큐베이터다. '청년큐브'로 명명된 안산시 청년 창업 지원 공간은 2016년 한양캠프(상록구 한양대학교)와 예대캠프(상록구 광덕산안길)에 이어 이번 초지캠프 씨네랩이 세 번째다. 초지캠프는 오래된 영화관을 리모델링해 마련했다. 20여 개의 창업실을 기본으로 기존 영화 상영관으로 사용되던 각 방들을 그대로 살려 특색 있는 창업공간으로 조성했다. 전용면적 약 1천950㎡에 전시관, 교육실, 랩랩(Fab Lab, 시제품제작실), 카페테리아 등 여러 부대

시설을 갖추어 청년 창업자들이 사업에 집중 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초지캠프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지원 자격이 있다. 첫째, 입주 업체 선정 후 최소 1년 이상 안산을 기반으로 창업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하며 둘째, 신청일 현재 안산 지역 내 대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경우 또는 팀 구성원 중 1인 이상이 안산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있어야 한다. 팀원은 최대 5명 이내이다. 또한, 창업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았어야 하며 사무실을 기반으로 업무를 추진해야 한다.

선정 분야는 전기·전자, 정보통신, 문화예술, 지식서비스, 기계 등 창업을 통해 가치 및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모든 분야이다. 임대료는 없으나 소정의 관리비는 납부해야 된다. 또 예비 창업자인 경우 입주 2개월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기존 사업자는 주소변경을 완료해야 한다.

안산시는 청년큐브 초지캠프를 통해 다양한 창업 프로그램들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 10월 31일에는 청년창업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가족관계 형성을 위한 인구교육'을 진행했고 청년 창업과 관련한 다양한 토론회도 개최하고 있다.

◇ 문의 : CineLab 안산(070-4285-9556) / 인차광 명예기자_chee0806@naver.com

"시민이면 즐겨라!"... 제1회 포토공원 개막 기상천외한 패러디·풍자·분장 촬영대회도 열려



제1회 포토공원 개막식이 지난 11월 25일 와동체육공원에서 비영리단체 '만원의행복(단장 김진국)' 주관으로 열렸다. 개막식에는 자원봉사자와 사진전 수상자, 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개막식과 함께 열린 제1회 '전국 기상천외 패러디·풍자·분장 사진 촬영대회'는 사전에 응모한 40여 점의 작품 중 7개 분야에 대해 수상자를 선정했다.

이날 행사는 난타공연, 가수 김복주의 노래, 오카리나 앙상블, 색소폰·우크렐레·바이올린 연주 등이 펼쳐졌으며, 환경보호캠페인 '나만의 손수건 만들기', 장애인 인식개선 어르신 교통안전 홍보 캠페인, 세계 의상·악기 체험 등 부대행사도 함께 열렸다. 김진국 단장을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포토공원을 만든 계기는? '미소도시' '관광도시'를 지향하는 안산시를 홍보하고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안산시 이미지를 만들어 나가자 포토공원을 기획했다. 일반 시민과 청소년 사진가들이 적극적으로 촬영하고 즐길 수 있는 포토공원이 되길 바란다.

포토공원이란? 부모나 연인 그리고 반려동물과 함께 사진을 촬영하기에 적합한 장소를 말한다. 사진은 행복한 순간을 영원히 남기는 작업으로 가족, 연인과 함께 사진을 찍으며 행복한 시간을 오래 간직할 수 있기 바란다. 시민이면 누구나 즐길 수 있다.

인근 지역주민들에게 한 말씀. 지역주민의 참여를 아꼈고 와동 지역 상인과 소통하는 축제 형식으로 포토공원 개막 행사를 준비했다. 지역주민들이 가족과 함께 사진을 찍으며 쉬어 갈 수 있는 공간이 되길 바란다.

앞으로 거는 기대가 있다면. 포토공원이 탄생한 만큼 지역주민과 사진동호회 회원들이 가고 지키면 그 역할을 충분히 해내는 멋진 포토공원이 되리라 생각한다. 또한 제2호, 제3호 포토공원이 전국 여러 곳에 생겨나길 바라며 안산 제1호 포토공원이 와동의 명소가 되길 바란다.

◇ 문의 : 만원의 행복(070-7767-3332)

이선희 명예기자_iamyou70@hanmail.net / 사진_김진국 명예기자

안산시여성자치대학 총동문회 '아나바다 바자회' 열어 불우이웃돕기 '실천'



안산시여성자치대학 총동문회(회장 박미숙, 이하 여성대학동문회)는 12월 10일 신안산대학교 국제교육관 국제홀에서 '아나바다 바자회'를 열었다. 여성대학동문회는 매년 '사랑 나눔 기금마련 바자회'를 열어 불우이웃을 도왔으며, 올해 바자회 수익금도 안산시 여성가족과를 통해 어려운 여성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안산시가 지원하고 신안산대학교에서 위탁으로 진행하는 여성자치대학은 회원들이 미래지향적인 도전의식과 여성대표성을 확보해 진취적이고 보람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로 지난 2003년 시작해 지금까지 총 27기 900여 명의 동문을 배출했다. 이날 바자회에서는 한 해 동안 총동문회 발전에 이바지한 유공자에 대한 표창장 수여도 함께 진행됐다.

지의상 신안산대학교 사회교육원장은 "리더십과 영향력을 겸비한 유능한 여성 인재를 발굴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격려했다. 이어 교육을 수료하고 총동문회를 거쳐 의회로 진출한 사례를 들며 "이미 만들어진 인재가 아니라 여성의 잠재력을 깨워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미숙 회장은 "아나바다 바자회처럼 뜻깊은 행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헌신한 회원들에게 감사하고, 총동문회의 발전에 더욱 이바지할 수 있는 여성자치대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잠재력이 탁월한 여성 인재들이 많으니 뜻 있고 진정 봉사할 수 있는 동문을 키움으로써 안산 여성 인재의 동로가 되는 총동문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성자치대학 상반기 개강은 내년 3월이며 현재 접수 중이다.

◇ 문의 : 신안산대학교 사회교육원(031-490-6188)

노론산 명예기자_nrssun@hanmail.net



한국와이퍼(주) 이경국 대표이사

“미래의 꿈을 가지고 전 세계로, 글로벌 브랜드를 만든다”



이경국 대표이사

안산시 역사와 한 길을 걷고 있는 안산스마트허브는 안산 시민들의 일터이자 안산시와 한국 경제의 성장 동력이기도 하다. 하지만 최근 경기침체에 따른 제조업의 성장둔화와 경쟁력 약화, 기반시설 낙후로 인한 생산성 저하, 입주기업의 영세화·소기업화 등 어려움 속에서 혁신과 재생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동종 업계에서 대표 브랜드를 가진 기업으로 성장해 온 기업이 있다. 한국와이퍼(주)는 창업 이래 앞서가는 기술력과 우수한 품질을 바탕으로 자동차용 윈도우 와이퍼(Window Wiper) 분야를 대표하는 기업이 되었다. “더 노력해서 글로벌 자동차 부품 기업으로 성장·발전에 나가겠다”는 이경국 대표이사를 만났다.

Q 회사에 대해 대략적인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한국와이퍼(주)는 1987년 설립했으며 늘 앞서가는 기술과 우수한 품질을 유지하고자 노력해왔다. 자동차 와이퍼의 ‘암(ARM)’과 ‘블레이드(BLADE)’를 생산 1988년부터 기아자동차, 1990년부터 현대자동차에 공급하며 회사가 성장했다. 1996년 ISO 9001 품질경영시스템인증을 획득했고, 공장을 증축하기도 했다. 2005년 1천만 불 수출의 탑, 2006년 2천만 불 수출의 탑, 2007년 3천만 불 수출의 탑을 이어 수상하기도 했다. 현재는 본사(제1공장) 외에 제2공장, 제3공장까지 운영하고 있다. 국내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현대모비스는 물론 일본의 와이퍼 제조업체인 미쓰바, 일본의 자동차 다국적기업 혼다, 일본의 대표적 자동차 제조회사 닛산 등 해외 기업들과의 거래도 활발해졌다.

Q 성공적 기업운동을 위한 중요한 가치나 비전은.

경영이념은 ‘새로운 가치의 창조를 통하여 사회에 공헌한다’와 ‘미래의 꿈을 가지고 전 세계로 약진한다’ 두 가지다. 고객만족을 실현하는 것은 물론 고객의 안전과 행복한 삶을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통해 기술적으로 완벽하면서도 친환경적인 제품을 생산하는 글로벌한 수준의 자동차 부품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노력한다. 직원들의 인재상도 ‘술선수법’과 ‘술선실행’이다. 모두가 스스로 본보기를 보이고 모범이 되며, 남보다 항상 먼저 스스로 실행한다면 발전하고 약진할 수밖에 없다.

Q 생산품에 대해 쉽게 설명해달라.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자동차 와이퍼의 ‘암(ARM)’과 ‘블레이드(BLADE)’다. 와이

퍼는 쇠로 된 막대, 꺾을 수 있고 움직이는 몸체가 있는데 그것이 ‘ARM’이다. 와이퍼의 구동부로서 상하운동을 하며 ‘BLADE’와 조립되어 힘을 제공해주는 몸체인 것이다. 우리는 차량조건에 맞는 최적의 기본설계를 갖춘 ‘일반 ARM’ 외에도 멋진 외관이 특징인 ‘디자인(Design) ARM’, 플라스틱 적용으로 부식방지가 특징인 ‘수지 리어 ARM’을 생산한다.

‘BLADE’는 몸체에 붙어 유리나 맞닿는 부분, 고무로 된 부분을 말한다. ‘ARM’이 와이퍼 시스템에 의해 작동하면 자동차 앞 유리에 밀착된 ‘BLADE’가 빗방울 및 먼지 등을 제거하여 운전자의 시야를 확보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우리 제품인 ‘NB35 BLADE’는 개량형 합성고무를 사용해 내구성이 우수하고 저소음 성능이 탁월해 37%의 점유율로 국내 OEM완성차 장착율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Q 세계 최고의 기술력과 품질을 실현하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품질캠페인, 지속적인 연구개발 등 다양한 활동 통해 제품의 품질과 가격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고객만족을 이끌어내려고 노력하고 있다. 캐드/캠(CAD/CAM) 시스템을 이용한 첨단 설계 방식으로 세계 최고의 기술을 확보하고 있으며, 우수한 설계 개발 인력과 3차원 정밀 측정, 각종 환경시험기, 내구력 시험, 강도 시험, 충격 시험 등을 통해 최고 품질의 제품 생산을 실현해가고 있다.

Q 한국와이퍼(주) 노동조합이 지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생활안정과 권익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들었다.

한국와이퍼 노동조합은 회사와 교섭과정에서 지역의 비정규 영세노동자들과 함께 하겠다는 의지로 공공상생기금을 요구했고 회사 측이 이를 수용했다. 그래서 지난 2017년 8월 한국와이퍼 노동자들이 안산시청 시장실에서 안산희망재단을 통해 사회연대기금을 전달했다.

기업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 사회공헌 또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는 기업 이미지 재고로 이어져 기업의 이익 또한 더 커진다고 생각한다.

Q 안산시민들에게 한 말씀

항상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 고객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속적인 혁신과 노력을 통해 고객 최우선의 경영을 펼쳐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도 말씀드렸듯이 한국와이퍼는 고객만족을 위해 항상 노력할 것이며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도 계획하고 있다. 안산시민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겠다.

◇ 문의 : 한국와이퍼(주)(031-491-3191) / 황정욱 명예기자_loose dom@hanmail.net





“안전안산(安全安山)이 최우선입니다”

‘안전(安全)하다’는 의미는 위험 원인이 없는 상태 또는 위험 원인이 있더라도 인간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대책이 세워져 있는 상태를 말한다. 즉, 단순히 재해나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것을 안전이라 할 수 없으며, 잠재적인 위험을 예측하고 그를 토대로 적절한 대책이 수립되어 있을 때를 진정한 안전 상태라 할 수 있다. 예측 불가능한 자연재해와 사건·사고를 방지함으로써 ‘안전안산(安全安山)’을 실현하고자 하는 노력들을 소개한다. 특히, 겨울철 한파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재난에 대한 적극적인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안산시, 겨울철 한파 대책 종합지원상황실 운영

안산시가 겨울철 가습적인 한파에 대비하여 독거노인 및 취약계층 등 시민 생활의 피해를 예방·점검하고, 농작물 냉해 등 피해를 줄이기 위해 종합지원상황실을 운영한다. 이를 통해 농·축·수산 등 관련 분야 한파 대책을 수립하고 24시간 상황관리체제를 가동하며, 계량기·수도관 등 급수시설의 동파 대책도 마련해 추진한다.

또한 저소득층이나 노숙인 등 취약계층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전기·가스·유류 등 에너지 관리시설에 대한 안전 대책도 강구한다. 특히, 한파 특보가 발령될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적절한 국민행동요령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종합지원상황실은 한파 특보 발표 시부터 해제 시까지, 특보가 지속되는 기간 내내 24시간 운영된다. 안전행정국장이 대책본부 동제관을 안전사회지원과장이 대책본부 담당관을 맡으며, 총괄상황반, 상수도대책반, 복지분야대책반, 건강관리지원반, 에너지대책반, 농작물대책반, 어민피해대책반, 노인보호대책반, 교통대책반까지 총 9개의 반을 편성한다.

취약계층 대상, 한파 시 안부 전화 및 방문 확인 실시

한파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인지하고 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판단으로 ‘한파정보 전달체계’를 구축, 한파 지속기간 동안 일일 단위로 피해 및 대처사항에 대해 보고한다. 특히 기온 급강하가 예상되거나 한파특보가 발표될 경우 기상정보의 신속한 전파를 위해 관련부서 담당자, 도우미, 방문건강관리사 등의 연락처를 사전에 데이터베

이스(D/B)로 구축한 후 재난문자 서비스 수신 시 취약계층 시민에게 안부 전화나 방문 건강 확인 등을 하도록 할 방침이다.

복지정책과는 노숙인들을 위한 일시보호시설 운영을 강화하고 응급장자리도 확대하며 거리 노숙인 보호를 위한 위기관리팀도 운영한다.

노인장애인과와 보건행정과는 노인복지시설 등 시설별 난방 실태를 확인하고 난방비 지원방안을 검토 중으로, 난방이 되지 않는 주거시설에 거주하는 노인의 경우 경로당 등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대책 등을 강구하고 있다.

농업정책과와 해양수산과는 농·수산업 시설물 피해를 낮추기 위한 대책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비닐하우스, 축사 등 농업시설물과 어선, 양식장 등 어업시설물에 대한 수시 점검과 정비를 실시하고 있으며, 재해발생 시 실질적 보상을

위한 농·수산물 시설 보험 가입도 유도하고 있다.

수도시설과는 수도계량기나 수도관 동파 시 긴급 교체를 위해 긴급지원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겨울철 대책 기간 동안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단수 조치를 유예하는 방안도 대해서도 검토 중이다.

녹색에너지과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게 에너지 복지 지원을 강화하며, 불시에 정전이 발생할 것을 대비해 한전, 전기안전공사 등 민간단체와의 긴급 협조체계를 구축했다.

상록구·단원구 양 구청의 경제교통과에서는 한파 시 첨두시간대(Peak time, 하루 중 차량의 도로 점유율이 가장 높은 시간대) 버스 운행 횟수를 늘리고 막차 시간을 연장 운행할 계획이며, 버스정류소를 이용하는 시민들을 위해 바람막이 쉼터와 온열의자 등을 마련했다.

한파 시 국민행동요령



겨울철 건강관리

- ◇ 손가락, 발가락, 귓바퀴, 코끝 등 신체 말단부위의 감각이 없거나 창백해지는 경우에는 통상을 조심해야 함
- ◇ 심한 한기 기억상실, 방향감각 상실, 불명명한 발음, 심한 피로 등을 느낄 경우에는 저체온 증세를 의심하고 바로 병원으로 가야함.
- ◇ 갑작스런 기온 강하 시 심장 및 혈관계동, 호흡기 계동, 신경계동, 피부병 등은 급격히 악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유아, 노인 또는 병자가 있는 가정에서는 난방에 유의해야 함.
- ◇ 혈압이 높거나 심장이 약한 사람은 노출부위의 보온에 유의하고 특히 머리 부분의 보온에 신경을 써야 함.
- ◇ 외출 후 손발을 씻고 과도한 음주나 무리한 일로 피로가 누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당뇨병자, 만성폐질환자 등은 반드시 독감 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함.
- ◇ 통상에 걸렸을 때는 꼭 죄는 신발이나 옷을 벗고 따뜻하게 해주며 통상부위를 잘 씻고 말려야 함.



겨울운동 주의사항

- ◇ 운동 전 충분한 스트레칭을 실시하여 관절의 가동(稼動) 범위를 넓힘으로써 부상을 방지하여야 함.
- ◇ 준비운동 강도는 몸에서 약간 땀이 날 정도가 적당하며 실내에서 실시하여야 함.
- ◇ 운동은 가능한 실내에서 하는 게 부상위험을 줄일 수 있고 옷을 겹쳐 입되 많이 입지 말아야 함.
- ◇ 고혈압 등 만성병 환자는 오후에 실내에서 운동하는 게 좋음.
- ◇ 겨울엔 체온 유지를 위해 10~15%의 에너지가 더 소비되므로 운동 강도를 평소의 70~80% 수준으로 낮추는 게 좋음.
- ◇ 술은 이뇨(利尿)·발한(發汗) 작용으로 체온을 떨어뜨리므로 등산·스키 등 운동 중에는 술을 마시지 말아야 함.
- ◇ 운동 후에는 따뜻한 물로 목욕하고 옷을 갈아입는 등 충분히 보온을 실시하여 감기를 예방하여야 함.



"기후변화에 따른 태풍, 집중호우, 대설, 폭염, 한파 등 갈수록 심해지는 자연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대책 및 시설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안산시-

안산시 '스마트폰 안전 귀가 서비스' 시행

인근 7개 도시 협력... 사용자 위치 정보 공유, 위험 경보 전달



안산시는 11월 26일부터 경기도 내 7개 도시(안산, 안양, 시흥, 군포, 광명, 과천, 의왕)와 협력해 심야에 귀가하는 시민들이 안심하게 귀가 할 수 있도록 개발한 '스마트폰 안전귀가서비스(이하 안전귀가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안전귀가서비스는 스마트폰(안드로이드 기반)에 '안전귀가서비스' 앱을 설치한 후 이용할 수 있으며, 심야시간 대 늦은 퇴근길이나 하룻길, 인적이 드문 골목길 등 위험을 느끼는 상황에서 앱을 실행하면 사용자의 위치 정보가 자동으로 안산시통합관제센터와 미리 등록된 보호자에게 전달되는 서비스다. 또한 위급 상황 발생 시 앱의 '위급상황 버튼'을 누르거나 단순히 '스마트폰을 흔들기만' 해도 통합관제센터와 보호자의 휴대폰에 경보음이 울리며, 사용자와 가장 가까운 곳의 CCTV로 확인해 위기 상황이라고 판단되면 즉각 경찰에 현장 출동을 요청하게 된다. 해당 앱은 앱스토어와 플레이스토어에서 '경기 안전귀가'를 검색하면 누구나 쉽게 설치·이용할 수 있으며, 시는 이를 통해 시민들에게 안전한 귀갓길을 제공하고 더불어 행정서비스 만족도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안산시 1천724곳에 3천234대의 방범용 CCTV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안전하고 살맛나는 생생도시 안산'을 만들기 위해 경찰서 등 유관 기관과의 협조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 문의 : 안산시 U-정보센터(031-481-2823)

안산시, 한파대비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실시

내년 2월까지 방문간호 전담인력 26명 배치



안산시는 통절기 한파로 인한 독거노인과 의료취약계층의 건강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내년 2월까지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를 실시한다.

시는 겨울철 한파로 인하여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의 건강 피해 발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상록수·단원보건소 통별 방문간호 전담인력 26명을 배치해 집중적

으로 건강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방문간호 전담인력은 내년 2월까지 독거노인, 만성질환자 등 취약계층 가구를 직접 방문해 기본 건강상태 체크, 건강관리 모니터링, 후원연계(쌀, 생필품 등), 한파홍보 방안 유통(양말 등)을 제공하며, 한파대비 건강수칙과 응급시 대처법, 행동요령 등의 한파대비 교육을 진행한다.

또한 한파특보 발령 시 가정방문, 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취약계층의 건강상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한랭질환 감시체계를 연계 운영할 방침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추운 겨울 주민들이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특히 취약계층 집중 방문건강관리를 통해 한파대비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시민들도 기상상황을 수시로 확인하면서 한파특보 발령 시 야외 활동을 가급적 자제하고, 외출 시엔 가벼운 옷을 여러 벌 겹쳐 입는 등 겨울철 건강 관리에 특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문의 : 상록수보건소 보건행정과(031-481-5953)



수도계량기 및 관(管) 보온

- ◇ 수도계량기 보호함 내부는 헌옷으로 채우고, 외부는 테이프로 밀폐시켜 찬 공기가 스며들지 않도록 보온하여야 함.
- ◇ 복도식 아파트는 수도계량기 통파가 많이 발생하므로 수도계량기 보온에 유의하여야 함.
- ◇ 장기간 집을 비우게 될 경우에는 수도꼭지를 조금 열어 물이 흐르도록 하여 통파를 방지하여야 함.
- ◇ 마당 및 화장실 등의 노출된 수도관은 보온재로 감싸서 보온 실시
- ◇ 수도관이 얼었을 때는 헤어드라이 등으로 서서히 가열하여 녹이거나, 미지근한 물로 녹임



외출 할 때

- ◇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여야 하며, 자동차를 이용 시 낮에 외출하고 가급적 혼자 움직이지 말아야 함.

- ◇ 가족에게 행선지와 시간계획을 미리 알려주어야 함.
- ◇ 간선도로를 이용, 지름길이나 이면도로를 피하여야 함.
- ◇ 만약 자동차에서 고립될 경우에는 가능한 수단을 이용해서 구조연락을 취하고, 통승자가 있을 경우 체온을 이용하여 추위를 막고, 차례로 수면을 취하고 항상 한사람은 깨어있어 구조에 대비하여야 함. 또한 아간에는 실내등을 켜 구조요원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고, 구조요원이나 항공기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색깔 있는 옷을 눈 위에 펼쳐 놓아야 함.



자동차의 안전대책 등

- ◇ 도로의 결빙에 대비하여 스노우체인 등 예방조치를 강구해야 함.
- ◇ 시트를 높이고 앞 유리 성애를 완전히 제거하는 등 시야를 넓혀 빙판길 등 만약의 돌발사태에 대비하여야 함.
- ◇ 미끄러운 길에서 출발 시 2단 기어에 반 클러치를 사용하여 함.
- ◇ 바퀴가 헛돌지 않도록 앞바퀴는 직진상태로 출발해야 함.

- ◇ 커브를 돌 때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기어변속을 금지하여야 함.
- ◇ 빙판에서 멈출 때는 엔진브레이크로 속도를 완전히 줄인 후 풋 브레이크를 사용해야 함.
- ◇ 평소보다 저속 운행하고 차간거리를 확보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운전을 하여야 함.
- ◇ 스노우체인, 염화칼슘, 삽 등 자동차 월동용품을 준비하고, 부동액, 배터리, 각종 오일 등 자동차 상태를 사전에 점검해야 함.





안산시 여성합창단, 제 31회 정기연주회 가져 아름다운 하모니로 마음을 따뜻하게 한 '가을소나타'

안산시여성합창단이 11월 27일 오후 7시 30분 안산문화예술의전당 해돋이극장에서 안산시립국악단, 지구촌어린이합창단, 국악인 박애리 씨 등과 함께 '가을소나타'를 진행했다. 안산시여성합창단이 '고독', '가을 소나타', '고향의 봄'을 아름다운 목소리로 무대를 열었고, 지구촌어린이합창단이 '고추 먹고 맴맴', '내가 바라는 세상' 등 동요를 부르며 귀여움을 발산했다.

이번 '가을소나타' 정기연주회는 안산 시민에게 감동의 무대를 선보이기 위해 1부 가곡, 2부 세계민요, 3부 우리나라 민요로 구성했으며, 마지막은 지구촌 어린이 합창단과 안산시립국악단의 콜라보 기획으로 환상의 하모니를 선사했다.

게스트로는 국악인 박애리 씨가 '쑥대머리', '열두 달이 다 좋아', '사노라면', '연안부두' 등의 국악과 가요를 부르며 흥을 더했다.

안산시여성합창단은 그동안 다양한 음악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의 문화 예술 발전에 기여

했고 시민의 문화 욕구를 충족시켜왔으며, 이번 공연 또한 아름다운 음악으로 안산시민에게 즐거운 무대를 선사했다는 평가다. 관객들은 뜨거운 박수로 화답했다.

안산시여성합창단은 1987년 안산시어머니합창단이라는 이름으로 창단. 지난 2014년 7월 안산시여성합창단으로 명칭을 변경해 발표회를 갖고 있으며, 전국 규모 합창대회에 참가해 여러 번 수상한 경력도 가지고 있다. 시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서의 초청공연도 31년 동안 꾸준히 이어 오고 있다.

안산시립국악단(상임지휘자 임상규)은 1996년 창단해 전통음악의 현대적 계승과 창작 음악의 보급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국내외 공연과 음반 발매를 통해 한국 창작음악의 대중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악단이다.

◇ 문의 : 안산시 문화예술과(031-481-2068)

김효경 명예기자_poe-t-hk@hanmail.net

시민과 함께 배우고 익히는 '생생문화재' 안산 문화를 되돌아보는 사진 전시회 개최



안산시는 지난 11월 18일부터 25일까지 성호기념관을 거점으로 최용신기념관, 수암마을 전시관 등에서 '안산학술연구주간AS.K(Ansan Study week)'를 진행했다. 이는 시민의 인문정신 함양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시민과 함께 배우고 익히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이번 행사는 영·정조 시대 정신문화의 중심지였으나 급격한 산업화 과정에서 통력을 상실한 안산시의 문화 위상을 돌아보기 위한 것으로, 애민정신으로 시대를 아꼈던 대학자 성호 이익, 개혁정신과 교육에 대한 열망을 심어준 최용신 선생을 통해 창의적인 사고를 배우도록 했다.

또한 안산 문화유산의 핵심 콘텐츠 활용을 통해 시민 문화의식이 성장할 수 있도록 연속

학술회의와 전시회, 문화유산 활용 전문 교육과정도 운영했다. 안산의 대표 문화유산을 소개하는 이번 프로그램은 '브레인스토밍 포럼' '최용신 학술 심포지엄' '성호 학술대회' '2018 안산시 생생문화재 사진 전시'로 구성됐다.

22일부터 3일 동안 진행된 학술행사에는 이상균 충남역사문화연구원, 김형목 독립기념관 연구원, 김문식 성호학회장의 기초 강연을 비롯해 32명 학자들의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첫 시작인 '브레인스토밍 포럼'은 안산이 간직한 소중한 문화유산을 되짚어보고 현재를 확인함으로써 미래의 가치까지 발굴해보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올해로 6회째를 맞는 이번 심포지엄은 최용신 선생의 스승, 동료, 약혼자, 인물에 대한 연구와 그 당시 안산 지역에 대한 탐구, 근대 교육에 대한 연구 등 다양한 주제로 진행 됐다.

학술행사의 마지막은 안산이 낳은 위대한 실학자 성호 이익 선생의 인문정신에 대한 발표와 탁본 체험 등으로 구성됐다.

한편, 안산학술연구주간이 계획한 '생생 문화재 사진 전시'가 일주일 동안 펼쳐졌다.

김문식 회장은 "성호의 학문은 경계가 없이 방대하며 그의 인문정신은 시대를 넘나들어 오늘날에도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안산은 위대한 학자 성호 이익을 배출한 터전으로 정신적 가치를 이어오고 있다"며 "이번 안산학술연구주간이 안산의 소중한 문화자산을 세상에 알리는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 문의 : 성호기념관 (031-481-2574), 최용신기념관 031-481-3040)

김효경 명예기자_poe-t-hk@hanmail.net



생활체육의 도시 ①

안산



편한 친구나 선·후배를 갖고 싶은 주민은 누구나 참여 가능!!

해양동 청석FC, 20대부터 60대까지 축구로 뭉친 주민들

매주 일요일 오전 8시(하절기 오전 7시), 사동 해양운동장에서는 해양동 주민이자 축구를 좋아하는 성인들이 모인다. 축구를 통해 주민들끼리 서로 소통하고 건강을 지키는, 조기축구회 청석FC(회장 최운배) 회원들이다.

청석FC의 회원 수는 총 49명이며, 회원의 나이는 20살부터 61살까지 매우 다양하다. 청석FC는 회원들의 참석률이 높아서 자체적으로 두 팀으로 나누어 경기를 진행하기도 한다. 운동장 한편에는 컨테이너 사무실이 마련되어 있어 동호회 운영에 편의성을 더하고 있다.

동호회 가입 조건으로는 20대 이상이면 '축구하고 싶어서 몸이 근질근질 하신 분', '배가 나와서 평소 운동하기 싫으신 분', '식막한 아파트 생활에 편한 친구나 선·후배를 갖고 싶으신 분' 등이다. 가입 조건에서 알 수 있듯이 해양동 주민들의 취미, 건강, 소통을 책임지고 있다. 최운배 회장은 "매년 12월에는 운동이 끝난 후에 연회를 진행하여 회원들끼리 친분을 쌓고 있다."고 설명했다.

동호회가 사용하고 있는 사동 해양운동장은 야구장 2개와 인조잔디 축구장 1개, 야외 축구장 2개로 이루어져 있다. 인조잔디 축구장과 야구장은 대관을 통해 사용할 수 있다.

대관은 매월 평일 두 번째 날, 다음 달 분에 대해 선착순 접수를 진행하고, 운영시간은 6시부터 18시까지이다. 조명시설이 없어 밤에는 운영하지 않는다. 야구장은 팀으로 등록된 단체(최소 9인 이상)에 한해 대관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조기축구회는 학교 운동장을 주로 이용하기 때문에 주말에 축구를 하려는



학생들과 종종 대립하기도 한다. 이런 상황에서 안산시는 빈 공터를 생활체육 운동장으로 운영함으로써 주민들의 건강 증진과 함께 조기축구회와 학생 간의 대립도 줄일 수 있었다.

현재 안산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조잔디 구장 및 풋살장은 총 23개로, 조기축구회가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 문의 : 안산도시공사(031-481-1707), 청석FC 한대희 총무(010-7546-0181)
인치광 명예기자_chee0806@naver.com

안산시, '유소년 야구장' 조성

리틀 야구와 생활야구인의 수요에 맞춘 쾌적한 생활체육환경 제공



단원구 원시동에 유소년을 위한 야구장이 조성됐다.

안산시는 단원구 범지기로 141길(원시동)에 7천462㎡ 부지를 확보해 야구장 조성 공사를 마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야구장은 도비 6억5천4백만 원과 시비 8억4천6백만 원을 포함 총 1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 1987년 축구장으로 조성·이

용돼 오던 곳을 철거한 후 기초·배수로 공사를 마치고 인조잔디를 깔아 야구장으로 재탄생시켰다.

안산에는 초등학교 야구부 2개와 유소년 야구단 4개 등 야구 꿈나무들의 활동이 활발하지만 이들을 위한 전용 야구장은 전무한 상태였다. 시는 최근 급성장한 리틀 야구와 생활야구인의 수요에 맞춘 쾌적한 생활체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유소년 야구장을 조성했다.

안산시 관계자는 "이번 유소년 야구장 준공으로 야구 꿈나무 육성과 유소년 야구단의 체육 활동 참여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안산은 초·중·고교에 야구팀이 운영되면서 프로야구 SK와이브스의 김광현 선수 같은 뛰어난 야구인도 배출해 야구 전통 고장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야구장 조성으로 유소년 야구 활성화를 이루고 학교 야구도 동반 발전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리틀 야구는 12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며 전국 각지에 200개가 넘는 팀들이 활동하고 있다. 한국은 1972년 리틀 야구 세계연맹에 가입해 매년 8월경 열리는 리틀 야구 월드컵에서 1984년, 1985년, 2014년 세 번 우승했다.

◇ 문의 : 안산시 체육진흥과(031-481-2996)
백미란 명예기자_whity0218@naver.com

안산시 생활체육진흥과

선착순 무료입장

2018 안산시

송년 음악회

2018. 12. 27.(목) PM 7:30

안산문화예술의전당 해돋이극장

출연진 | 박해미 고은정 박은주 최혁주

안산시립합창단 안산시립국악단

고은정

박해미

주최·주관 | 안산시

문의처 | 안산시 문화예술과 481-2068

오픈스튜디오 프로젝트

‘옆집에 사는 예술가’(3)

예술가의 삶이 고스란히 담긴 생활공간이 활짝 열렸다. 경기문화재단이 경기지역 미술작가들의 작업을 보다 밀도 있게 소개해온 G-오픈스튜디오 ‘옆집에 사는 예술가가 올리는 안산의 열 두 작가’를 찾았다. 안산문화재단 공모로 선정된 열 두 작가의 작업실을 찾아 이들의 작품세계를 들여다본다.



안산에서 태어나 동덕여대 회화과와 동 대학원에서 한국화를 전공한 안예환 작가는 생각의 자유로움을 지키기 위해 교직생활 10년을 접고 전업 작가를 택했다. 1994년부터 13회의 개인전과 미국,

안예환 작가 : 존재에 대한 근원적 물음 ‘나는 무엇인가’ 비움과 채움의 사이, ‘공간’에 대한 담론들

일본, 독일, 호주, 싱가포르, 중국, 오스트리아 등의 국내외 전을 열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동덕여대, 안산대, 신안산대, 명지대 등에서 강의했으며 단원미술제, 인천여성미술 비엔날레 사무국장과 운영위원 등을 역임했다.

안예환 작가는 1993년 전업작가가 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상록수역 인근 상가의 작업실에서 묵묵히 작업을 하고 있다. 첫길목의 흔적부터 남겨진 작업실에서 안 작가는 ‘나는 누구인가’라는 존재에 대한 근원적인 물음을 선인장, 비어 있는 달, 우주, 버드나무, 보자기 등의 형상으로 표현한다. 원동형 작업과 보자기는 텅 비어 있고, 안을 채우려는 욕망은 공허할 뿐, 삶은 제 나름의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다는 것.

안 작가는 “모든 인간이 살아가는 모습은 다양하지만 모든 사람의 삶의 가치는 높낮이가 없다”며 평행선상에 올려놓은 보자기에 대해 이야기한다.

반짝이는 하늘과 바다, 텅 빈 보자기에는 우리들의 인생이 담기고, 선인장에는 작가의 험난한 삶과 ‘가시’에 찔리듯 씁

지 않은 길이라도 묵묵히 이 길을 가겠다’는 예술을 향한 강한 의지가 중첩됐다.

수묵담채에서 시작한 그의 한국화는 전통 채색 작업에 새로운 실험과 연구를 끊임없이 해오면서 전통적 재질감과 채색 대비로 다른 차원의 회화 영역을 개척한다. 구두 회사와의 콜라보 전시에는 여성들의 예뻐 보이고자하는 욕망과 높은 힐을 견뎌야 하는 고통을 선인장으로 표현하며 한국화도 젊은 감각으로 변해야 함을 보여준다.

신선영 명예기자_woghkiah@hanmail.net



안산을 무대로 쓴 소설 ‘넘버.오삼일’ 출간

안산지역에서 20년 이상 활동 중인 현직 기자의 작품



안산을 무대로 쓴 추리소설이 출간돼 화제를 모으고 있다. 안산에서 20년 넘게 기자생활을 하고 있는 현직기자가 쓴 소설이라서 더욱 관심을 끌고 있다.

소설의 제목부터 눈길을 끈다. ‘NO.531 넘버.오삼일’ 시의원이 살해된다. 이어서 환경운동가가 살해된다. 사건 현장에는 숫자가 적힌 천원권 지폐가 발견된다. 천원권 지폐에 적힌 숫자의 비밀을 풀

어가는 과정에서 살인의 이유가 밝혀진다.

그런데, 살인의 이유가 밝혀지고 범인의 윤곽이 나타나지만 범인에게에는 완벽한 알리바이가 있다. 그 후로는 범인의 완벽한 알리바이를 무너뜨려가는 형사와 기자의 추리가 시작된다.

이 소설에는 살인사건을 해결하는 추리소설 본연의 재미에 더해서 현재 우리사회에 대한 냉철한 비평도 담겨있다. 그리고 다양한 지식이 융해돼 있다.

출판사는 서평을 통해 ‘이야기 전개가 탄탄하고, 구성이 치밀하다’고 평했다.

이 소설에는 안산의 여러 관광지가 등장한다. 그리고 안산의 여러 지명이 등장한다.

소설을 쓴 작가는 “안산을 홍보하기 위해서 안산을 무대로 소설을 집필했고, 안산의 여러 관광지와 지명을 소설에 등장시켰다”고 말했다.

소설을 읽은 사람들의 좋은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한 독자는 “이야기 전개가 빨라서 지루한 줄 모르고 읽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독자는 “소설에 등장하는 지명이 친숙해서 소설이 더욱 쉽게 읽혔다”면서 “우리 사회의 현실에 대한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소설”이라고 덧붙였다.

안산에서 즐기는 세계 음식-②

태국 음식 ‘팟타이와 팟씨유’

“쌀국수의 국물이 부담스러울 때 생각나는 음식”



지난 2009년 관광·레포츠 분야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된 단원구 원곡동 ‘다문화음식거리’는 세계 각국의 음식을 현지와 비슷하게 맛 볼 수 있는 장소이다. 고향의 맛이 그리운 외국인뿐 아니라 국내에서 세계 음식을 제대로 즐기기 위해

방문하는 내국인 관광객의 유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다문화음식거리에 위치한 태국 음식 전문점 팟타이를 방문. ‘팟타이’(8천 원)와 ‘팟씨유’(8천 원)를 맛보는 것은 국내에서 가장 쉽게 태국 현지를 느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다.

팟타이는 음식 이름에 국호인 ‘타이’를 사용할 정도로 태국을 대표하는 음식이며, 여기서 ‘팟’은 ‘볶음’을 뜻한다. 팟타이에 대해 식당 관계자는 “새우, 숙주나물, 달걀을 넣어 달콤하게 볶은 태국의 대표적인 쌀국수”라고 소개한다. 또한 팟씨유에 대해서는 “돼지고기, 각종 야채, 계란 등을 태국 전통의 간장 소스로 볶아낸 쌀국수”라고 소개한다. 여기서 ‘씨유’는 ‘넛은 면’을 뜻한다.

두 음식은 모두 볶은 면을 이용함으로써 쌀국수의 국물이 다소 부담스럽게 느껴질 때 맛 볼 수 있는 세계음식이다. 팟타이가 새콤한 맛을 느낄 수 있는 서양풍의 음식이라면, 팟씨유는 구수한 맛의 정통 아시아풍 음식으로 ‘밥이 생각나는 맛’이기도 하다. 많은 사람들이 ‘팟타이를 먼저 경험 한 후 팟씨유를 먹어볼 것’을 추천한다.

◇ 문의 : 팟타이 (070-4176-0562)

인차광 명예기자_chee0806@naver.com



반월고운빛하모니여성합창단 정기연주회 개최

창단 15년... “음악이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 찾아가 기쁨을 나눈다”



12월 14일 안산문화예술의전당 달맞이극장에서 반월고운빛하모니여성합창단(지휘자 이상훈, 이하 반월합창단) 정기연주회 '겨울 이야기'가 열렸다.

반월합창단은 2004년 5월 반월동 어머니합창단으로 창단해 15년의 전통을 가진 안산에서 가장 오래된 동 여성합창단으로, 음악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찾아가 기쁨을 나누며 사랑의 메아리를 전달하고 있다. 안산시 주최 여성합창단 경연대회에서 창단 첫 해 장려상, 이듬해 우수상을 수상한 반월합창단은 매주 2회 이상 꾸준히 연습하며 매년 정기연주는 물론 안산시의 크고 작은 행사에 꾸준히 초청되어 위상을 높여가고 있다.

이번 정기공연에는 해금, 콘트라베이스, 바이올린 등 악기와 함께 편곡된 세계민요 등 수준 높은 명곡과 크리스마스 메들리를 안무와 함께 들려줬다. 유지철가수, 전문타악연주자, 탤런트, 비보이 등 다양한 장르로 다채롭게 구성된 프로그램으로 청중의 환호를 받았다. 이날 음악회에는 22명 단원들의 가족을 비롯해 반월동장, 주민자치위원장 등 반월동 주민들이 객석을 가득 채웠고 음악이 끝날 때마다 “브라비”, “파이팅”을 외치며 함께 즐겼다. 창단 초기에는 화음은커녕 멜로디만 따라 부르며 기쁘고 즐겁게 노래하던 어머니들이 소프라노, 알토 파트로 나뉘 화음을 맞추고 다양한 곡들을 접하며 음악적 수준을 높여갔다. 현재는 소프라노 1·2, 알토 1·2, 네 파트로 화음을 나뉘서 부를 수 있을 정도로 수준이 향상됐다.

이상훈 지휘자는 “음악을 익히기도 어려운데 전문 안무가에게 안무와 춤을 배우며 열심히 노력한 어머니들의 열정에 감동이 될 정도로 모두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처럼 관객의 호응이 좋을 때 지휘자, 기획자로서 보람도 크고 너무 행복합니다. 합창단이 15년째 이어올 수 있는 원동력은 단원들의 열정과 노력입니다”라고 치하했다.

*브라비: 무대위의 주체가 남녀 혼성이나 단체일 경우 '잘한다, 좋다'의 뜻을 지닌 갈채로 브라비를 쓴다.

신선영 명예기자_woghk@hanmail.net

시낭호봉사단, 추위 녹이는 사랑의 김장나눔 봉사

안산 지역 홀몸 어르신 60가구에 직접 담근 김치 전달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되는 시기, 이웃과 정을 나누는 시민들의 따뜻한 봉사활동이 진행돼 훈훈함이 전해진다.

11월 27일 안산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시낭호봉사단(단장 조남용)은 안산 지역에 거주하는 홀몸 어르신들의 겨울나기에 도움이 되고자 직접 담근 김장김치를 60가구에 전달했다.

경기도 자원봉사센터가 지원하고 시낭호봉사단이 주관한 이번 김장봉사는 시낭호봉사단 회원들이 직접 재료 손질부터 통에 담아 전달하기까지 이들에 걸쳐 귀한 손길을 더했다.

시낭호봉사단은 겨울철 김장봉사뿐만 아니라 안산 지역에 거주하는 소외계층 및 홀몸 어르신 가정에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노인 분들이 직접 하기 힘든 집수리나 도배 작업 등을 지원하기도 하고, 머리 손질이나 대화를 통한 관계 맺기 등 일상 속 의미 있는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조남용 단장은 “교육 분야에 종사하시던 분들이 퇴직 후 봉사활동에 참여해 노인 분들과의 정밀한 대화와 돌봄 활동을 진행하고, 이 내용들을 기록해 행정복지센터와 공유하고 반영하는 의미 있는 활동도 한다”며 일방적으로 내주는 봉사를 넘어 노인 가정의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실질적인 봉사를 실천하고 있음을 밝히기도 했다.

그 외에도 정기적으로 쌀, 생필품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50여 명의 회원이 지속적으로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조남용 단장은 “시낭호봉사단은 안산시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단체로 지역에서 열심히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며 “자체적으로 시민들이 시간도 내고 회비도 모아서 활동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열악한 것이 현실이다”고 아쉬움을 내비치기도 했다. 이어 “정성들여 준비한 김치가 홀몸 어르신들의 따뜻한 겨울나기에 보탬이 됐으면 한다”며 “시민들의 자발적인 봉사활동에 시에서 더 많이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바람이 크다”고 말했다.

◇ 문의 : 시낭호봉사단(010-3322-8147)
황정옥 명예기자_loosedom@hanmail.net

대부중 · 고등학교 & 안산청소년꿈키움센터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문제예방을 위한 교육 ‘협력’



대부중 · 고등학교(교장 이재영)는 법무부 산하 안산청소년꿈키움센터(소장 윤용범)와 교육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청소년들의 인성함양을 위한 가족 및 사제 캠프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청소년들의 학업중단 및 학교폭력 등 비행 예방을 위해 협력하며, 또한 자유학기제 진로직업체험 활동과 청소년들의 민주시민 의식 고취를 위해서도 서로 노력하기로 했다.

윤용범 소장은 “상대적으로 각종 혜택에서 소외되기 쉬운 도서지역 청소년들에게 회복캠프나 체험 프로그램 등 우수하고 검증된 프로그램을 우선적으로 제공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우성 대부중 교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대부중 학생자치회의 체계적인 리더십 배양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학생과 부모가 함께 떠나는 가족 캠프는 돈독한 가족애를 만들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안산청소년꿈키움센터는 청소년 대안교육 및 학교폭력 예방교육, 법 교육 전문기관으로 ‘찾아가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청소년 회복캠프’, ‘자유학기제 직업진로체험 프로그램’ 등을 통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문제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문의 : 대부중학교(032-886-4272)
이선희 명예기자_jamyou70@hanmail.net

상록구

'늘 푸르른(常祿)' 상록구에는 일동, 이동, 사동, 사이동, 해양동, 본오1·2·3동, 부곡동, 월피동, 성포동, 반월동, 안산동 등 총 13개 동이 있다. 파릇파릇 우리동네에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

사동



사동복지센터 개관,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안산시는 상록구 장화2길 20 부지에 본오종합사회복지관의 분관 사동복지센터를 건립하고, 14일 개관식을 가졌다.

이날 개관식에는 지역구 국회의원, 시의회 의원, 지역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식전 축하공연, 개관 기념행사, 식후 주민참여 프로그램 등으로 진행됐다.

사동복지센터는 연면적 657㎡에 지상 3층, 지하 1층 규모이며 총별 프로그램 실과 주민 커뮤니티공간, 다목적실, 회의실 등을 구성해 주민이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총 공사비는 16억 원으로 5억 원의 특별조정교부금과 11억 원의 시비를 투자했다. 앞으로 사동복지센터는 저소득층과 아동, 노인 등 지역주민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반영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사동복지센터 개관으로 지역 주민들의 복지 욕구가 해소되길 기대하며, 보다 살기 좋은 복지도시 안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양동&사동



안산시 해양동&사동 친선체육대회 개최

해양동 체육회는 지난 9일 사동 체육회와 인근 불령경기장에서 "친선경기"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해양동&사동 친선 체육대회는 주민생활체육에 관한 정보 공유 및 소통으로 6회째 이어지고 있다. 이번 대회는 추운 날씨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실내경기종목인 볼링 및 포켓볼로 구성하였다. 볼링공이 핀을 치는 순간 참가자들은 환호성을 질렀고 경기 결과를 떠나 모두가 하나가 되는 모습이었다. 볼링경기로 해양동, 사동 간의 체육진흥을 위한 격의 없는 대화를 나누며 화합할 수 있는 시간을 보냈다. 권영덕 해양동 체육회장은 "승패를 떠나서 사동 주민들과의 친목의 장이 되길 희망하고 앞으로도 매년 개최할 예정이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정순미 해양동장은 "스포츠를 통해 사동과 소통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고 향후에도 주민들의 건강과 화합을 위한 행사에는 아낌없이 지원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반월동

반월동, 독자적인 브랜드마크가 생겼다!

반월동 주민자치위원회는 반월동의 지역적 특색을 반영한 독자적인 브랜드마크(로고)를 제작하기 위하여, 로고공모전을 통해 당선작을 선발후 주민들 의견을 반영한 최종 브랜드마크를 3일 발표하였다.

40여일간에 걸쳐 진행된 공모전에는 80여점에 이르는 응모작이 출품되었으며, 심사위원들의 심사를 거쳐 상록구 건건동에 거주하는 송아라 님이 1등을 수상했다.

영예의 1등을 수상한 브랜드마크는 반월동을 상징하는 반달, 아름다운 자연, 반월저수지와 반월천의 요소로 디자인 되었으며, 손글씨를 활용하여 반월만의 푸근하고 정겨운 이미지를 표현하였다고 한다.

조남현 주민자치위원장은 "오랜 노력 끝에 반월동만의 독자적인 브랜드마크를 갖게 되어 매우 기쁘다"면서 "앞으로는 농산물, 제조상품, 마을가꾸기 등과 연계하는 등 디자인만 보면 반월동임을 알 수 있게 사용할 방법을 모색하여 브랜드 가치를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경섭 반월동장은 "반월동만의 고유한 가치와 이미지가 담긴 로고를 주민들이 직접 제작함으로써 주민들의 정주의식과 애郷심이 높아질 거로 본다"며, "이는 매우 뿌듯하고 자랑스러운 일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월피동

마을계획기획단 주민 원탁회의 개최



상록구 월피동은 12월 8일 삼일초등학교 실내체육관에서 마을 주민 2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2018 월피동 주민 원탁회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원탁회의는 달 드는 언덕 월피동 마을계획기획단 주관으로 추진하는 월피동 마을계획 과정으로, 앞서 진행된 마을조사, 설문기획 워크숍, 설문조사 결과를 주민들에게 공유하고, 실행할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아 마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개최됐으며, 중·고등학생부터 마을 어르신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참여해 마을의 제 도출에 힘을 보탰다. 이날 원탁회의에서는 마을계획 수립의 일환으로 진행된 설문조사에서 사전 도출된 교육·복지, 문화·예술, 마을자원, 상가·경제 활성화, 주거환경, 안전·교통의 6개 분야별 과제를 가지고, 주민 250명의 활발한 참여로 많은 실행의제가 도출됐다. 이번 원탁회의를 통해 도출된 마을의제는 2019년부터 각종 공모사업이나 주민참여예산 등과 연계해 본격적인 마을사업으로 추진하여 더욱 살기 좋은 마을로 변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양영철 월피동장은 "갑자기 찾아온 한파에도 불구하고 마을을 위하여 한자리에 모여 화합을 이뤄준 주민들께 깊은 애정과 감사로 전한다"고 말했다.



단원구

조선시대 대표 화가 단원 김홍도를 기리는 단원구에는 와동, 고잔동, 중앙동, 호수동, 원곡동, 백운동, 신길동, 초지동, 선부1·2·3동, 대부동 등 총 12개 동이 있다. 따뜻한 이웃 우리동네의 소식이 궁금하다.

고잔동



소생길에 피어난 알록달록 월동 준비

거리에 겨울의 기운이 가득하다. 사람들은 찬바람이 스릴까 옷깃을 여미고 가로수들은 나뭇잎을 떨군 채 겨울준비를 하고 있다. 스산한 거리 풍경은 여느 해와 다른 없는 겨울의 모습이지만 올해 소생길 나무들은 예년과는 다르게 꽃보다 화사한 옷을 입고 있다. 지난 12월 3일 초지중학교 학생들과 학부형들로 구성된 뜨개 동아리 '초지뜨개공장'은 가로수의 월동을 위한 뜨개 모포를 준비해 고잔동을 방문했다. 이날 겨울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중에도 초지중학교 학부형과 학생들, 고잔동 마을정원사들은 마음을 모아 정성스레 짠 모포를 나무마다 입히는 작업을 진행했다. 짚으로 엮은 거적 대신 알록달록 깎아지 실로 만든 모포는 쓸쓸한 거리에 생기를 불어 넣은 듯했다. '초지뜨개공장'은 초지중에 재학 중인 학생들과 학부형들이 만든 동아리로 올해 '안산의제2'로부터 지원공모 사업에 선정돼 뜨개를 통한 공동체 회복과 세대 간 교류를 진행했다. 가로수에 뜨개 모포를 입힌 회원들은 "몇 달 며칠에 걸쳐 만든 소중한 모포를 나무에 입히는 보람되고 뿌듯한 시간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고잔동 마을정원사들은 "쓸쓸한 거리에 꽃이 핀 것처럼 화사하다. 나무의 추위를 막아주는 만큼 우리 마음도 따뜻해진 것 같다"며 고마워했다.

박미영 명예기자_woghkah@hanmail.net

대부동



대부도 문화공간 섬자리 "마을에서 만나다, 동행III" 개최

대부동은 대부도 문화공간 섬자리가 주최하여 12월 7일 대부도 종이미술관에서 '마을에서 만나다, 동행'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대부동 상동 주민 등 약 300여 명이 참여하여 대부동 상동의 생활과 문화에 대해 공감하며 교류하는 자리였다. 올해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의 활동에 관한 전일의 여정 영상과 청년커뮤니티인 청년살롱의 공연, '천일 이후의 코너'를 통해 대부도 주민이 서로에 대해 이해하고 천일 이후의 방향성에 대해 이야기해보는 소통의 시간이었다.

박진 문화공간 섬자리 대표는 "오늘 행사로 대부도 상동에 대해서 주민들과 더 많이 교류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앞으로도 상동에 사는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함께 즐기는, 즉 <공유공락>하는 지역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조계천 대부동장은 "대부도 청년들이 대부도 상동을 부흥시키기 위해 문화공간을 만들어 주민들과 공유해준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리며 보물섬 대부동을 만들기 위해 행정복지센터에서 더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와동



와동 새마을회

안산시 새마을지도자 대회 최우수 수상

지난 12월 6일 상록구청 시민홀에서 2018 안산시 새마을 지도자 대회가 개최되었다. 새마을 정신을 바탕으로 사회봉사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우수동에 표창하는 이번 대회에서 와동 새마을 남녀 협의회는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와동 새마을회는 사랑의 떡국 봉사, 환경지킴이 어르신 삼계탕 대접, 불우이웃돕기 바자회 개최 등 2018년 활발한 봉사활동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또 이날 새마을 활동을 적극 지원한 공무원으로 최석원 와동장이 유공 공무원으로 감사패를 수상받았다. 와동 새마을 부녀회장은 "내년에도 나눔, 봉사, 배려의 새마을 정신으로 새마을 운동을 활발히 펼치겠다"며 소감을 밝혔다.

초지동



초지고등학교, 경로당 위문행사 가져

초지고등학교에서는 11월 29일 학교에서 매년 주최하는 효사랑 체험 행사의 일환으로, 초지고등학교 학생들 80여명이 관내 6개 경로당을 방문하여 어르신들께 선물을 드리고 위문을 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초지고등학교는 학생들에게 어려운 시대에 우리 나라를 이렇게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신 어르신들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게 하고 어르신들에게 공경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효사랑 체험행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다.

이권우 초지고등학교장은 "열심히 공부하느라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행사에 참여해 줘서 고맙고, 세대를 넘어 사회에서 소외된 어르신들을 찾아뵙으로써 기쁨과 즐거움을 드리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앞으로도 학생들에게 경로효친 사상을 고취시켜 가정에서도 효를 실천하는 학생들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채종채 대한노인회 단원구 초지동분회장은 "다들 우리 손주 같아서 예쁘고 사랑스럽다. 세대를 넘어 사회에서 소외된 어르신들을 찾아와줘서 감사하고, 올해는 더욱더 훈훈한 겨울을 날 수 있을 것 같다"며 격려해 주었다.

사단법인 함께크는여성 '올림'

인간적 가치와 존엄이 지켜지는 세상을 외치다



미투(Me Too) 운동 이후 여성혐오, 펜스 물(이성 간 접촉을 차단하는 처신) 등 부작용이 나타나면서 청소년의 일상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사단법인 함께크는여성 '올림'(사무국장 김혜정, 이하 올림) 회원들이 성 평등한 지역사회를 위해 안산시에 재학 중인 중·고등학생 751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여성혐오 실태를 조사했다. 그 결과 온라인에서는 3명 중 2명, 교실에서는 4명 중 1명꼴로 여성혐오를 경험했으며 1천 건 이상의 혐오표현이 오간 것으로 조사됐다.

'올림'은 인간적 가치와 존엄이 지켜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2015년 2월 설립한 여성단체로, 지역 여성들의 생활 속 연대 활동을 통해 진보의 가치를 세우고 건강한 시민의식과

인문학적 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다양한 소모임을 구성해 활동한다.

'현대사+이슈 터는 여자', '몸과 인문학', '동학언니들' 등 소모임을 운영하고 연 2회 대중 강좌를 열고 있다. 또, 여성·청소년의 노동 현실을 알리고 대안을 찾기 위해 노동인권 강좌와 '알(R)-권리를 찾아라'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방학을 맞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알(R)-권리를 찾아라'는 '알바'와 '알다'라는 중의적 표현으로, 미래 노동자인 청소년들을 플래시몹(flashmob, 불특정 다수인이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 모여 주어진 행동을 하고 곧바로 흩어지는 것), 캠페인 등 참여형 자원봉사로 이끌며 생활 속 노동의 가치와 의미를 확장시켜준다.

'평등명절' 캠페인을 벌이며 여성과 남성 모두가 존엄하게 살아가는 성 평등 세상을 외치는 가하면, 유해물질이 검출된 일회용 생리대 문제가 대두되기 전부터 대안 생리대를 제작하면서 100명이 넘는 회원들이 이슈를 공유하기도 한다.

김혜정 사무국장은 "여성혐오의 표현수위도 심각하다. 하지만 의식개선과 함께 혐오와 차별에 대응력을 높일 수 있는 학교에서의 성 평등 교육은 상당히 부족하다. 응답자의 61%가 여성혐오나 성 평등 관련 수업을 받은 적이 없고, 수업도 생물학적 수업 위주로 편향돼 있다."며 "젠더에 기반한 인권감수성을 전반적으로 강화하는 방식의 교육이 절실하다. 학교 내 성차별과 여성혐오 관련 교육을 위해 학교와 지역 전문가들이 교육 인프라를 강화하는 등 대책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 문의 : 함께크는여성 올림(031-482-0505)
신선영 명예기자_woghkahn@hanmail.net

찢고 묶고 엮어서 만드는 나만의 예술작품

신성희 작가가 자란 우리동네 수암동 이야기



수암마을전시관에서는 안산학술연구주간으로 11월 17일부터 12월 8일까지 매주 토요일 2시에 '찢고 묶고 엮어서'라는 제목으로 4차에 걸쳐 나만의 예술작품을 만드는 주말가족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수암마을전시관은 수암경로당을 리모델링해 재탄생시킨 마을 전시관으로 옛 건물 그대로 천장과 작은 공간으로 나누는 후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빛으로 수암동의 모습을 감상할 수 있는 공간이다.

수암마을의 역사를 오롯이 품고 있으며, 올 10월에 개관해 안산의 역사를 알리는 여러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안산읍성 및 관아지터가 위쪽으로 자리를 잡고 있고, 일제강점기 때 3.1만세운동을 불렀던 비석거리, 선정비군 공역

비, 원당사터, 안산향교터, 안산초등학교 등이 마을을 형성하고 있다.

전시관 개관 즈음에 '마을 깊이 알기'에 참여한 어린이들이 '수암동 이야기'라는 창작동화책을 펴내기도 했으며, 수암동에서 태어나고 자란 신성희 작가의 작품도 전시하고 있다. 신성희 작가는 홍익대학교 회화과를 졸업하고 프랑스를 비롯해 유럽 곳곳에서 작품 활동을 했으며, 채색한 캔버스 위에 잘라 다시 캔버스에 박거나, 캔버스를 잘라 엮는 '누아주(nuage)'라는 독창적인 예술 장르를 탄생시킨 작가다. 기존 회화의 평면성을 거부하고 색채와 새로운 질감, 부피, 입체성을 도입해 자신만의 회화세계를 구축해 왔다. 이번 프로그램은 고향을 그리워하던 신성희 작가의 예술

세계를 들여다보고 마을의 흔적을 찾아 역사를 바로 알아가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 안산시에서 주최했다.

행사에 참가한 가족들이 만든 작품들은 이후 전시할 계획이다.

김민재(신길중 2학년) 학생은 "엄마가 신청해줘서 왔는데 생소한 작업을 하게 돼서 흥미롭다"며 "또 예쁘고 아름다운 작품을 내가 만들었다는 자부심에 기쁘다"고 말했다. 전시관 벽에는 '항상 고향을 이야기하고, 고향을 그리워하며 만든 작품들을 그의 고향 수암에서 만나보도록' 신성희 작가가 느꼈을 향수(鄕愁)를 함께 느껴보길 바라며, 다시 한 번 작가 신성희를 되새겨보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적혀 있다.

◇ 문의 : 수암마을전시관 (031-481-2974)
김효경 명예기자_poet-hk @hanmail.net

BRAVO ANSAN

안산시 시정소식지 '브라보안산'은
무료구독이 가능하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메일_bravo@iansan.net • 전화_031-481-2042



안산시의회, 제252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서 안건 '의결'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 30건 처리



안산시의회(의장 김동규)가 12월 6일 제252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안건을 의결했다. 의회는 앞서 지난달 27일부터 4개 상임위원회 별로 안건을 심의해 왔으며, 이날 김정택 부의장 주재로 진행된 2차 본회의에서 그

간 심의했던 안건 중 예산 관련 안건을 제외한 총 30건의 의결을 마쳤다.

본회의에 따르면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송바우나)는 조례 명칭을 간소화하고 회기를 늘리는 등의 내용을 담은 '안산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표 발의 송바우나)을 명칭만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안 가결했다.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주미희)의 경우 시 SNS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자문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안산시 인터넷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표 발의 김태희) 등 총 9건의 안건을 원안 가결한 데 이어 용어 정의 및 협치협회의 설치 등을 명시한 '안산시 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은 협의회 구성인원을 축소하는 내용으로 수정안 가결했다.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정종길)는 주거기본법 시행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 시의 주거 복지 정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안산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한 것을 비롯해 총 10건의 안건을 원안 가결했으며,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나정숙)도 2018년말 기금의 존속기한 만료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한 '안산시 도시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포함해 8건의 안건을 원안 가결했다.

상임위 공동 심사 안건인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3개 상임위 모두 원안 가결 처리됐다.

본회의를 주재한 김정택 부의장은 심의에 참여한 동료 의원들과 공직자들의 협조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남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간에도 성실히 심의에 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의안 심의 결과(제 252회 제 2차 정례회)

총 : 31건(원안가결 28, 수정안가결 2, 부결 1)

소관	의안명	심사결과
의회운영위원회	안산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수정안가결
기획행정위원회	안산시 인터넷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원안가결
	안산시 정책자문관 운영 조례안	부결
	안산시 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	수정안가결
	안산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원안가결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원안가결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원안가결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원안가결
	안산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원안가결
	안산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원안가결
	안산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원안가결
	2018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원안가결
	안산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원안가결
	안산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원안가결
	안산시 정신보건 증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원안가결
도시환경위원회	안산시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원안가결
	안산시 초지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가결
	안산시 장애인 보장구 수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가결
	안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가결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동의안	원안가결
	안산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가결
	안산시 관광안내소 운영 및 관광홍보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가결
	안산시 도시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원안가결
	안산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원안가결
	안산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원안가결
	안산시 지속가능한 에너지 도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원안가결
	안산시 시화지구쓰레기매립장 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	원안가결
	안산시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	원안가결
	안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원안가결
	안산시 도시교통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원안가결
공동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원안가결

자치법규(조례규칙) 입법 절차

의안발의

- 단체장
- 지방의원
 - ⇒ 재적의원 1/5 이상
 - ⇒ 10인 이상 연서
- 시민
 - ⇒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100 이상~1/70 이하

입법예고

- (의견수렴 절차)
- 공고기간 20일 이상



의회 · 심의 의결

- 재적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의결된 조례안은 5일 이내 단체장에게 이송



공포

- 20일 이내 공포



효력발생

-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이 지나면 효력발생





〈나비잠 : 우리 아이가 태어났어요〉 코너는 시민 여러분의 참여로 만들어 집니다.

아기사진(또는 아기와 함께 찍은 사진)과 아기이름 · 생년월일 · 성별, 부모이름, 주소, 연락처, 태명, 태몽, 사연(탄생이야기, 아이에게 하고 싶은 말 등)을 메일로 보내주시면 게재 후 소정의 원고료(5만원)를 드립니다. (대상 : 안산시에 주소를 두고, 생후 ~ 24개월즈음 아이를 둔 출산 가정) ※ 나비잠 : 갓난아이가 두 팔을 머리 위로 벌리고 자는 잠을 뜻하는 순우리말



파카기는 이제 막 신혼생활을 시작한 저희에게 생각보다 좀 빨리 찾아온 아이예요. 성격이 많이 급한 아이인지

아기이름: 미정 출생년월: 2018. 12. 5. 태명: 파카기
태몽: 외할머니가 커다란 황금똥을 받는 꿈

예정일보다 한 달 일찍 저희 품으로 왔습니다. 조금 일찍 태어나 혹시 어디가 아프지 않을까 걱정도 많이 되었지만 다행히 당당한? 체격의 건강한 아이로 태어났네요. 알고 보니 예정일을 채우면 엄마가 고생할까봐 미리 나온 효녀였습니다. ㅎㅎ

처음에는 부모가 된다는 게 조금 무섭기도 하고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까 걱정도 되었지만, 천사같이 잠든 아이의 모습을 보면 늦지 않은 나이에 결혼한 저희 부부에게

하늘이 주신 선물 같네요. 아직은 이름도 지어 주지 못했지만 곧 예쁜 이름 지어서 하루에 백번씩 불러줄게~ 앞으로 우리 가족 지금처럼만 행복하자.

격려글

- 드디어 아빠가 됐구만+_+ ㅎㅎㅎ 넘나 축하행♡
- 우와~~~! 진짜 예쁘겠다! 축하드려요!!ㅋㅋ
- 축하해요~^^ 딸바보가 되심도 미리 축하드려요~

Photos in Ansan

겨울스케치 인 안산



호수공원



호수공원



안산문화광장



경기도미술관



독자 투고

마음씨 참 착한 여대생

일요일 오후, 외지에 갔다가 안산으로 돌아오는 시외버스를 탔는데 옆에 앉은 젊은 여대생과 함께 오게 됐다. 여대생은 카메라를 가지고 있었다. 꼼짝 없이 틀어 나란히 앉아 한참을 봐야 하는 상황에 인사라도 트지 않으면 한동안 뻘뻘하고 불편할듯 해서 "사진 작가인가 봐요?"라며 내가 먼저 말을 건넸다. 그러자 학생은 아니라며 "혹시 아버님이나 어머님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라고 뜬금없이 우리 부모님의 연세를 묻는다. "두 분 모두 73세이요, 그런데 그건 왜요?"라며 되물자 그녀는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다. "사실은 요즘 농촌에는 사진관이 많지 않잖아요. 장사가 안되니까 전부다 도시로 빠져 나가서 그런거죠. 그런데 농촌에는 노인들만 사시잖아요. 그래서 그분들 증명사진 찍어 드리러 다니고 있어요. 예를 들면 나중에 자녀분들이 해외여행 보내드릴 일도 생기잖아요. 그런데 여권용 사진이 없어서 몇십리길 다녀오시는걸 많이 봤어요. 사진 한장 때문이에요. 그래서 시골마을 노인분들 사진 예쁘게 잘 찍어 드리려고 돌아다녀요."

"아! 그러면 학생의 집은 안산인데 사진 찍기 봉사활동을 하러 시골 마을 여기저기를 돌아 다닌다는 건가요?"

"네. 칼라 사진 잘 뽑아서 우편으로 보내 드리는거죠. 나중에는 그게 영정 사진으로도 쓰이게 되구 ..."

아, 그랬구나. 이 여대생은 자신의 시간과 경비를 쪼개어 남들은 생각지도 못한 봉사활동을 하러 다니는 것이었다. 정말 그 여대생이 너무나 예뻐 보였다. 내게 부모님 연세를 물어본 이유도 그런 관심에서 물어본 거라 그랬다. 기부는 자신이 가진 것을 누군가에게 주는 것 같지만 준 것보다 더 큰 것을 마음에 얻게 된다고 한다. 자신의 작은 나눔에 밝게 웃으며 기뻐하는 어려운 이웃들을 보면서 보람과 뿌듯함을 얻게 되는 것이다.

"항상 생각에서 행동으로 옮기기가 힘들잖아요. 그런데 막상 시작하고 보니까 재미있고 보람되요." 여대생의 밝은 미소가 참 맑아 보였다. '세상의 모든 딸들이 이렇게만 자라 준다면 얼마나 좋을까'하는 바람이 새록새록 들었다.

• 신재민



독자 투고

겨울이 오면...



찬 바람이 싸늘하게~ 두 뺨을 스치면~ 따스하던~ 겨울이 오면 어김없이 한번쯤은 속삭이게 되는 추억의 CM송이다. 매서운 찬바람이 불 때, 이 노래를 흥얼거리다 보면 어느새가 따뜻한 호빵 한입이 먹고 싶다는 생각이 절로 나게 된다. 그러다 종종 생각은 옛 추억까지 이른다.

김이 모락모락나는 호빵 기계는 어린시절 뿌리치기 힘든 유혹이었다. 기계 안에서 뭉실뭉실 하얀 자태를 뽐내는 호빵은 맛 또한 좋았다. 호빵 기계 앞에 서서 하단에 붙은 종이 겹질을 보면서 단팥호빵 속에 숨어 있는 야채호빵을 찾아 먹는 재미가 쏠쏠했다. 그땐 녹색종이 겹질이 붙은 야채호빵이 별미 중에 별미였다. 친구들과 모여가서 서로 먼저 야채호빵을 찾겠다며 호들갑을 떨기도 했고, 너무 기계 안에 오래 있어서 꾸글꾸글해진 호빵을 보면서 지금 사먹을까 나중에 다시 와서 새 호빵을 사먹을까 고민하기도 했다. 때론 다 팔려 식어버린 빈통을 보고 서운하기도 했다. 엄마는 호빵을 사줄 때 반으로 쪼개 갈라 주면서 한마디를 하셨다.

"호~ 불면서 천천히 먹어."

나는 호빵을 받기 무섭게 어머니의 말씀은 까맣게 잊고 허겁지겁 먹다가 입을 데이곤 했다. 그 시절 호빵은 추위를 이기게 해주는 간식이자 놀이였다. 그리고 지금은 추억이 됐다. 요즘 나오는 호빵은 왠지 그때 그 맛을 따라가질 못하는 것 같다. 현재 나오는 호빵이 예전과 맛이 다를 리가 없겠지만 옛날 게 더 맛있다고 느껴지는 건 추억이라는 양념이 첨가되어서 일까?

성인이 되선 호빵을 밖에서 하나씩 사먹기 보단 마트에서 한봉지씩 사서 집에서 먹곤 한다. 단팥, 야채, 피자, 고구마, 예그 등 종류도 참 다양해서 골라먹는 재미가 있다. 최근에 자주 먹는 대표 아식인 치킨, 피자, 족발 등은 간단하게 먹기에는 조금 과한 느낌이다 싶을 땐 따뜻한 호빵과 시원한 우유 한 잔 이만한 게 없다!

이번 주말 어머니를 찾아 뵈고 뜨끈한 바닥에서 호빵을 간식으로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

• 이승림



독자 투고

사춘기 아들을 양육하며

어릴 적에는 나쁜 아이와 충분히 교감하며 잘 지낸다고 생각했었다. 아들이지만 다정다감하고 소동이 잘 됐고, 서로 편지도 주고받으며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관계였다. 중1때 이사하면서 아들은 초등학교 때 살던 동네가 그리다며 다시 돌아가고 싶어 했다. 그래도 참고 견디라고 하며 인생이다 그런 거라는 통 설득하며 내 생각을 주입했다.

우리 가족 중 가장 잘 소동이 되고 마음이 맞다고 생각했던 아들이 요즘 나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감정조절을 잘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오늘 아침만해도 일어나자마자 핸드폰 붙들고 있더니 누워있다가 게임 한판만 하고 싶다며 컴퓨터를 켜더니 점심먹는 시간도 촉박하게 보내고, 약속시간에 허둥대며 나가기 바빴다. 아들이 중학교 마지막 시험을 앞두고 "오늘은 도서관 가자" 라고 말만했다. 영화라도 보라고 했더니 "시험 끝나구요" 이른다.

아들은 말을 잘한다. 엄마가 무엇을 원하는지도 잘 알아서 그런지 내가 원하는 대답을 잘 말한다. 그러나 이제 그게 더 약 오르고 화가 난다. 도서관 간다하기에 기특하게 생각하고 도서관 가기를 기다렸지만 시간은 그냥 지나 버렸다. 핸드폰이나 게임을 하느니 차라리 영화를 보며 기분전환이라도 하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운 마음을 갖는다.

내 마음이 조금만 더 부드럽다. 사춘기 시기의 아들이기에 잔소리하기보다는 격려해주고 사랑해주는 것이 내 역할이라는 것을 머리로는 아는데, 요즘 아들 모습을 보면 마음이 뒤집어지고 분노마저 솟아오른다. 이런 내 모습이 부끄러우면서도 내가 어찌다 가장 사랑스러운 아들에게 혼자서 욕을 퍼붓고 힘들어 하게 됐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든다. 엄마의 성장과 성숙이 필요하지만 나는 여전히 아들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자녀양육을 잘 하고 싶은데, 아직도 힘들어 하고 버거워하는 내 모습이 안쓰러우면서도 좀 더 솔직하게 대화하지 못하는 주저함이 부끄럽다. 자녀를 양육한 부모들의 평안함이 부럽고 존경스럽기까지 하다. 부모가 부모되기 위해 생채기 하는 과정이겠지만 힘든 건 힘든 거다. 이 시기를 통해 내 마음과 생각이 커지고 자녀를 이해하고 존재 자체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으면 좋겠다.

• 이옥자

생생도시 안산 방송됐다!

생생도시 '안산' : E브로드 한빛방송

⇒ 1편 '생태관광도시 안산으로 오세요'(11.26.~12.9.)

⇒ 2편 '겨울에 떠나는 즐거운 도시여행'(12.10.~12.23.)

안산

목요일에 희망 잡(Job)고(Go)



◇ 개최일시 : 2019. 1. 3. (목)
14:00 ~ 16:00

◇ 장소 : 안산시청 대회의실

◇ 참여대상 : 취업을 원하는 구직자

◇ 주최/주관 : 안산시 / 한국산업단지공단 경기지역본부

◇ 내용

• 적합한 일자리를 찾는 구직

자에게 구인 정보와 면접 기회 제공

• 인재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는 구인업체에 인력 채용 기회 마련

◇ 문의 : 안산시 일자리센터(031-481-2882)

적십자회비 모금 안내

적십자회비 참여는 우리 지역의 소외된 이웃에게 희망이 됩니다.

◇ 집중모금기간 : 2018.12.1.~2019.1.31.

적십자회비 참여는 우리 지역의 소외된 이웃에게 희망이 됩니다.

적십자회비 집중모금기간 2018.12.1 ~ 2019.1.31

12월 14일 04:00

12월 14일 04:00

12월 14일 04:00

12월 14일 04:00

12월 14일 04:00

12월 14일 04:00

12월 14일 04:00

12월 14일 04:00

12월 14일 04:00

12월 14일 04:00

12월 14일 04:00

12월 14일 04:00

12월 14일 04:00

12월 14일 04:00

12월 14일 04:00

12월 14일 04:00

12월 14일 04:00

12월 14일 04:00

12월 14일 04:00

12월 14일 04:00

12월 14일 04:00

12월 14일 04:00

12월 14일 04:00

12월 14일 04:00

12월 14일 04:00

12월 14일 04:00

12월 14일 04:00

12월 14일 04:00

12월 14일 04:00

12월 14일 04:00

12월 14일 04:00

12월 14일 04:00

12월 14일 04:00

12월 14일 04:00

12월 14일 04:00

12월 14일 04:00

12월 14일 04:00

12월 14일 04:00

12월 14일 04:00

12월 14일 04:00

12월 14일 04:00

12월 14일 04:00

12월 14일 04:00

12월 14일 04:00

12월 14일 04:00

12월 14일 04:00

12월 14일 04:00

12월 14일 04:00

12월 14일 04:00

12월 14일 04:00

12월 14일 04:00

12월 14일 04:00

12월 14일 04:00

12월 14일 04:00

12월 14일 04:00

12월 14일 04:00

12월 14일 04:00

12월 14일 04:00

12월 14일 04:00

12월 14일 04:00

12월 14일 04:00

12월 14일 04:00

12월 14일 04:00

12월 14일 04:00

12월 14일 04:00

12월 14일 04:00

12월 14일 04:00

12월 14일 04:00

12월 14일 04:00

12월 14일 04:00

12월 14일 04:00

12월 14일 04:00

12월 14일 04:00

12월 14일 04:00

12월 14일 04:00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사항 일제정비

◇ 기간 : 2018.11.28.~2019.2.28.

◇ 대상 : 무등록, 보험미가입, 안전검사 미필 가구 소유자

• 등록대상 가구 : 20톤 이하 모터보트 및 요트 / 30마력 이상 고무보트 및 수상오토바이

• 말소대상 가구 : 멸실, 기능상실, 소재불명(3개월), 수출 등

• 안전검사 : 신규(등록시), 정기(개인 5년, 사업자 1년), 임시(구조장치 변경)

• 보험가입 : 소유일로부터 1개월 이내, 만기시 재가입으로 가입상태 유지

※ 2019. 3. 1.부터 집중단속 실시(과태료 부과)

◇ 문의 : 안산시 해양수산과(031-481-3695)

전기안전점검안내

전기로 인한 화재, 가전 등 사고 예방하기 위해
3년에 1회 안전성 확인

◇ 대상 : 단원구 와동

◇ 기간 : 2019.1.1.~1.31.

◇ 내용 : 옥내의 누전(절연)여부 측정, 누전차단기 및 개폐기 동작상태 점검, 전기 배선 상태의 안전성 여부 확인 등

◇ 문의 : 한국전기안전공사 안산·시흥지사(031-481-7435)

책 읽는 안산 / 12월 추천도서

이달의 주제 『내 삶을 채우는 말』

아동



아무 말 대잔치

저자 홍민정 / 출판사 좋은책어린이

이 책의 주인공 천우는 말을 거침없이 하고, 맥락에 맞지 않는 말을 내뱉는 중에 친구들 사이에서 '막말 대장'이라 불린다. 천우의 막말이 반복되자 친구들은 천우를 조금씩 멀리하다 결국 '안 들려 작전'을 쓰기로 한다. 천우가 막말을 하면 안 들리는 척 무시하는 것 결국 천우는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곱지'라는 말을 곱씹으며 달라지기 시작한다.

청소년



비울수록 사람을 더 채우는 말그릇

저자 김윤나 / 출판사 카시오페아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자신의 말 그릇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보고 어떻게 하면 나의 말 그릇을 보다 단단하고 깊게 있게 만들 수 있는지 알려주는 책이다. 말 한마디에는 그 사람의 감정과 살아온 세월의 공식과 평소의 습관이 그대로 드러나게 된다. 이 책은 자신의 말 그릇을 단단하게 만들기 위한 '들기'의 기술과 말 그릇을 깊게 만드는 '말하기'의 기술을 다양한 사례와 함께 알려준다.

성인



그대 말이야!

저자 권정희 / 출판사 모두의지혜

남들과 다르면서도 세련된 말하기를 하고 싶은 이들에게 바치는 선물같은 책. 삼키고 삼을 만큼 아름다운 단어들, 입맞춤보다 소중한 맞춤법들, 그리고 소소한 삶을 담은 에세이까지 이 책 한권에 모두 담겨있다. "틀리지 않은 표현을 쓰는 것만이 다가 아니다" 권정희 작가는 우리가 일상에서 느끼고 표현하는 단어에 감성을 울리는 아름다운 웃을 입혀준다.

자료제공 : 중앙도서관



메리크리스마스&해피 뉴 아사프

◇ 일시 : 2018.12.22.(토) 14:00~21:00

◇ 장소 : 안산문화광장

◇ 내용

• 공연프로그램 : 18:00~20:00

• 크리스마스 마켓 : 14:00~21:00

• 예술불꽃 : 20:00

◇ 문의 : 안산문화재단(031-481-0530)

